문화네트워킹 구축 및 시민문화프로젝트 **‘문화모심기’**

2022 문화x모심기 네트워킹 포럼

팽창도시 김포의 지역문화 생태계

2022. **11. 26. 토** 14:00 ~ 16:00

김포아트빌리지 아트센터 다목적홀

김포문화재단
Gimpo Cultural Foundation

2022 문화x모심기 네트워킹 포럼

팽창도시 김포의 지역문화 생태계

2022. 11. 26.(토) 14:00~16:00
김포아트빌리지 아트센터 다목적홀

프로그램

시 간	내 용	
13:55~14:00	등록	참가자 등록
14:00~14:01	개회	행사 개회 선포, 내빈소개
14:01~14:05	개회사	개회사
14:05~14:35	주제1	팽창하는 도시와 지역문화 발제자(15') : 강승진/ 춘천문화도시센터장 토론자(15') : 이창수/ 2022 문화모심기 시민문화프로젝트 '결의만남' 기획자
14:35~15:10	주제2	지역문화정책 파트너로서 시민력의 필요성 발제자(15') : 송은정/ 완주문화재단 사무국장 토론자(10') : 배현명/ 2022 문화모심기 시민문화프로젝트 '김포 하부타' 기획자 토론자(10') : 방지웅/ 2021 문화모심기 시민문화프로젝트 '고롱고롱김포' 기획자
15:10~15:20	휴식시간	-
15:20~15:30	영상시청	2022 문화모심기사업 아카이빙 영상 상영
15:30~15:50	종합토론	전체 패널 및 참석자 종합토론 좌 장 : 구준회/ 김포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15:50~15:59	특별행사	문화의 못자리에 모를 심다
15:59~16:00	폐회	행사 폐회 선포

김포문화재단
Gimpo Cultural Foundation

김포문화재단 문화네트워킹 구축 및 시민문화프로젝트

문화모심기

문화모심기란?

모를 논에 옮겨 심듯 시민을 중심으로 문화 매개 인력을 발굴하고 지역자원을 문화적으로 재해석하며 프로젝트를 실행하는 등 지역에 문화를 심어내는 사업을 말합니다.

김포시는 급격한 인구유입률과 지역의 성장으로 시민의 문화적 욕구가 다양하게 분출하고 지역문화 특성이 재편되고 있습니다. 이에 시민을 위한 생활밀착형 지역문화 조성으로 문화적 경계를 허물고, 시민의 자발적인 활동을 유도하여 지역문화매개자로서 성장시키며, 시민 주도의 지역문화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지역 간 단절을 극복하고 주민 간 화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2022 문화모심기 사업 추진체계

1 문화모(人)Zip

지역의 문화 활동에 관심 있는 시민과 공동체를 발굴하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문화예술프로젝트에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실행하는 사업

1) 2022년 문화모(人)Zip 전문인력 워크숍 운영

— 운영기간 : 2022. 4월 ~ 6월

구분		주요내용
공통과정	오리엔테이션	워크숍 오리엔테이션, 권역별 매칭 및 네트워크 구성
문화프로젝트 발굴	전문역량 I , II	▪ 문화가치 탐구 위한 현안조사 ▪ 지역문화·이슈·환경에 대응하는 문화기획 ▪ 전문가 강의 - 문화로 도시재생하기 / 지역을 이끄는 브랜딩의 힘
	문화기획 I , II	▪ 지역 기반 문화기획 이론 · 교육, 파일럿 프로젝트 기획
네트워크	중간공유회	▪ 파일럿 프로젝트 기획안 공유, 멘토 매칭 및 피드백
문화프로젝트 기획	워크숍 I ~IV	▪ 멘토링시스템 1~4차, 프로젝트 수정 및 개선, 세부계획안 작성 ▪ 프로젝트 PT 및 제안서 제작
네트워크	최종공유회	▪ 프로젝트 기획안 공유

2) 2022년 시민문화프로젝트 활동 내역

순번	팀명	프로젝트명	유형	팀원
1	김포 하부타	드르륵 탁, 김포가 살아있다	전시	허정원, 배현명, 박다민
2	나도 문 아티스트야	문은 열기위해 닫았을 뿐야	체험	정보라, 주석희, 전부민
3	새오는 김포	김포동물시민보호대 (재두루미가 남긴 보물을 찾아라)	교육	윤석선, 최미혜, 원성혜, 서윤지
4	결의 만남	김포의 색을 찾습니다.	전시	이창수, 이지현, 변민아, 김태헌
5	파르티타	쉼표, 가족음악회	공연	배정혜, 유지은, 이혜영
6	맨드리	라베니체 조선 어게인	축제	염기정, 이춘희, 목명균, 이한솔, 김은영
7	김포에 반하다	해금에 스며들다	교육	김미진, 허선영

② 공(간)공(유) ALIVE 페스티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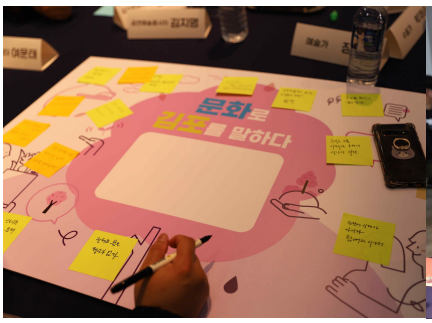
다양한 특색의 문화공간 자원을 시민 문화 활동의 장으로 활용함으로써 시민과 공간을 연결하고, 지역문화 정체성 강화를 위한 기반으로 조성하는 공간자원 네트워크 활성화 페스티벌 운영 사업

구분	김포문화마실 Spring Breeze	김포문화마실 Autumn Breeze	김포문화마실 Winter Breeze : 겨울의 초입
권역	남부권	북부권	중부권
일시	2022.	2022. 9. 3.(토)	2022. 11. 25. ~ 11. 26.
장소	새장터공원	김포다도박물관	김포아트빌리지 아트센터
주제	SPACE of Complex	SPACE of Art	SPACE of Creation
문화공간	화창한 서점&카페 꿈틀책방 코뿔소책방 책방짙은 김포청년공간 창공 해동1950 머든스튜디오 MELT 실타래공방 김포시가족센터	김포국제조각공원 김포다도박물관 김포평화문화관 버드나무갤러리 우드피아토 우리동네책문화협동조합 월곶생활문화센터 작은미술관 보구곶	책방짙은 코뿔소책방 슬로우플로우 라홈 공방 희랑글씨 캘리그라피

3 문화x모(募)심기 네트워킹

우리 지역의 문화와, 문화의 다면적인 역할에 대해 고민해보고, 시민의 주체적 활동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교류의 장 마련

구분	상반기 네트워킹 「문화모심기x문화로 김포를 말하다」	하반기 네트워킹 「2022 문화x모심기 네트워킹 포럼」
일시	2022. 3. 18.(금) 14:00	2022. 11. 26.(토) 14:00
장소	김포아트빌리지 아트센터 다목적홀	김포아트빌리지 아트센터 다목적홀
주제	김포시 문화의 공공성과 시민의 주체적 문화역할 담론	팽창도시 김포의 지역문화 생태계
참석자	김포시민 50여명	김포시민 60여명
내용	· 시민의 문화적 주체성을 강화하고 정주 의식을 높이기 위해 지역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문화교류의 장과 라운드테이블 마련 · 우리가 만드는 김포 7대 문화가치 제언	· 지역문화정책 분야 전문가와 시민참여자 주제발표, 토론 및 네트워킹 · 2022 시민문화기획자 및 문화프로젝트 성과 공유



김포문화재단 문화네트워킹 구축 및 시민문화프로젝트

문화모심기

목 차

주제1

팽창하는 도시와 지역문화 생태계 ---------- 01

발제문 팽창하는 도시와 지역문화 / 문화도시는 무엇을 향해갑니까
강 승 진 (춘천문화도시센터장)

토론문 21세기 도시 생존 필수조건으로서의 지역문화
- 2022년 문화모심기 프로젝트 '김포의 색을 찾습니다!'를 중심으로
이 창 수 (2022 문화모심기 시민문화프로젝트 '결의만남' 기획자)

주제2

지역문화정책 파트너로서 시민력의 필요성 ---------- 37

발제문 생활 속 문화를 이웃과 나누는 문화이장
송 은 정 (완주문화재단 사무국장)

토론문 지극히 사적인 기록으로 돌아보는 어느 시민문화기획자의 성장
배 현 명 (2022 문화모심기 시민문화프로젝트 '김포 하부타' 기획자)

지역문화정책 파트너로서 시민력의 필요성
방 지 웅 (2021 문화모심기 시민문화프로젝트 '고롱고롱김포' 기획자)

김포문화재단
Gimpo Cultural Foundation

주제 1

팽창하는 도시와 지역문화 생태계

발제 | **강 승 진** 춘천문화도시센터장

토론 | **이 창 수** 2022 문화모심기 시민문화프로젝트 '결의만남' 기획자

2022년 9월 기준, 50만 인구의 도시 김포. 2003년 이래 김포한강신도시 개발과 도시철도 개통으로 꾸준한 인구증가세를 기록해왔습니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 출산 등에 따른 자연적 증가가 아닌 타 시군으로부터 인구 유입에 따른 사회적 증가의 영향이 크고, 다국적 출신의 외국인 인구 비율도 4%대에 이릅니다.

이러한 최근의 빠른 양적 팽창에 따라 지역 구성원 간의 연결은 점점 다원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농경, 도시, 포구, 환경, 공업단지, 다문화, 여성, 청소년 등등... 한반도 쌀 시배지 역사를 중심으로 설명하던 과거의 지역 정체성은 이제 김포를 설명하기에 그리 충분치 못합니다.

한편, 도시의 팽창이란, 비단 인구증가와 같은 양적 팽창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양적으로도 질적으로도, 도시는 성장하기도 하고 후퇴하기도 합니다. 성장과 후퇴의 국면은 각 지역 저마다의 사정에 따르겠지만, 시대적 여건에 맞춘 새로운 의제를 도출하고 도시의 성장을 도모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시의 팽창은 지역문화 정체성 정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요? 도시의 다원적인 이해관계 속에서 지역문화를 만들어가는 민간과 공공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까요? 팽창하는 도시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지역의 문화를 보다 성장시킬 수 있을까요?

팽창도시 김포의 지역문화 생태계

팽창하는 도시와 지역문화

우리는 무엇으로 이 도시에서 행복할 수 있을까?

2022. 11. 26 춘천문화재단 문화도시센터장 / 강승진

나에게 춘천은…

사진출처 : 22.01.21 자 강원일보, 강원도민일보 포토뉴스

정서적 안정감이 가장 좋은 도시, 2009년 서울에서 이주

여러분은 왜 김포에 사는가?

쓸데없는 생각으로부터…

빌런의 탄생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될까

팽창하는 도시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들은…

도시는 무엇으로 구성되고 무엇으로 사는가?

시민Citizen, 활동Activity, 토지와 시설Land&Facil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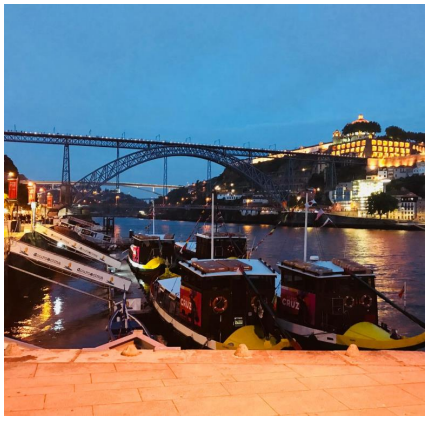
사회문화적 요소 | 물리적 요소

도시란 일정한 인구가 모여 거주하며
사회적, 경제적,정치적, 문화적 활동의 중심

효율성, 기능성, 속도와 시장 중심

안전함, 편리함, 정주 여건에 따른 서비스, 활동 기회 등
그러나 환경오염, 재난, 주거 생존권, 과다 비용, 비인간화 등의 폐해

오래된 도시들은 아름다운데
현대 도시들은 왜 아름답지 않을까?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순응하는 자세로 지은 옛 건축물과
현대의 건축물은 자연을 극복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지은 것들이 많은 현대의 건축물

도시는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을 닮는다

도시와 도시민의 관계를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선 도시의 '정서적 장' 을 통찰해야 한다.
즉, 도시의 다양한 물리적 조건, 그 조건에 대한 도시민들의 다양한 경험, 감정, 기억,
생활 영역에 있는 도시민들과의 관계 등을 다층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영국의 문화지리학자 나이절 스리프트

도시와 문화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 할 것인가?

도시는 흐름과 축적의 산물이다.

도시에는 사람들이 모이고
그들의 경험과 지식이 쌓이면서

도시만의 삶의 방식으로
문화가 만들어진다.

개인의 일상으로부터 도시의 정체성과 문화를…

문화가 할 일은 시민의 일상에 문화적 사건을 만드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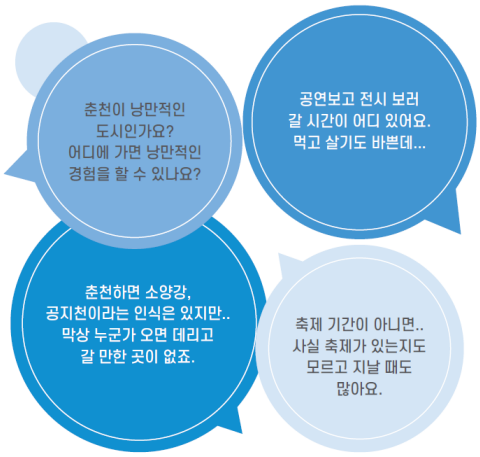
시민 한사람 한사람
개인의 욕구로부터 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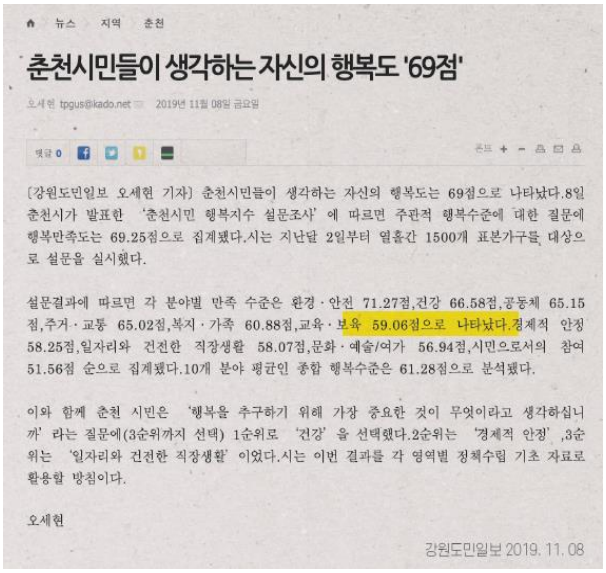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만들어가는
도시 프로젝트로

그 속에서
쓸모와 쓰임을
찾아내는 일

다양성, 지속성, 개방성, 관용성, 자기주도성, 관계지향 및 과정을 통해
시민성을 이끌어내고 궁극적으로 나의 삶과 도시의 관계를 직접 바꾸어 나가는 계기

춘천시민에게 물었습니다





뉴스 지역 춘천

춘천시민들이 생각하는 자신의 행복도 '69점'

오세현 tpgus@kado.net 2019년 11월 08일 금요일

[강원도민일보 오세현 기자] 춘천시민들이 생각하는 자신의 행복도는 69점으로 나타났다.8일 춘천시가 발표한 '춘천시민 행복지수 설문조사'에 따르면 주관적 행복수준에 대한 질문에 행복만족도는 69.25점으로 집계됐다.시는 지난달 2일부터 열흘간 1500개 표본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했다.

설문결과에 따르면 각 분야별 만족 수준은 환경·안전 71.27점,건강 66.58점,공동체 65.15점,주거·교통 65.02점,복지·가족 60.88점,교육·보육 59.06점으로 나타났다.경제적 안정 58.25점,일자리와 건전한 직장생활 58.07점,문화·예술/여가 56.94점,시민으로서의 참여 51.56점 순으로 집계됐다.10개 분야 평균인 종합 행복수준은 61.28점으로 분석됐다.

이와 함께 춘천 시민은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3순위까지 선택) 1순위로 '건강'을 선택했다.2순위는 '경제적 안정',3순위는 '일자리와 건전한 직장생활'이었다.시는 이번 결과를 각 영역별 정책수립 기초 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오세현

강원도민일보 2019. 11. 08

김포에 사는 여러분은 행복한가?

뜬금없는 질문…

사람의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

욕구, 결핍, 욕망, 감정

이성은 욕망의 조력자이며, 감정은 욕망의 표현이다.

근원적 욕망, 즉 삶에 대한 욕망

욕망하는 힘, 스피노자…

'코나투스'

자신의 존재를
지속적으로
유지시키려는 생명의 힘

'자기 보존의 욕망'

= 살아가게 만드는 힘

스피노자가《에티카》에서 분류한 인간의 48개의 감정

비루함 자긍심 경탄 경쟁심 야심 사랑 대담함 탐욕 반감 박애 연민 회한 당황 경멸 잔혹함 욕망
동경 멸시 절망 음주욕 과대평가 호의 환희 영광 감사 겸손 분노 질투 적의 조롱 욕정 탐식
두려움 동정 공손 미움 후회 끌림 치욕 겁 확신 희망 오만 소심함 쾌감 슬픔 수치심 복수심

관계, 결합 과 해체

결합의 관계를 맺는다면 기쁨이
반대로 해체의 관계를 맺는다면 슬픔이

스피노자는 우리의 감정을 크게 기쁨과 슬픔 두 가지로 나눔

우리는 스스로

자신의 감정을 지켜 낼
용기를 가진 주인으로 살고 있는가?

그 동안 춘천의 문화도시 사업을 통해 카페, 책방, 식당, 공원, 도로 등 도시의 다양한 마주침 장소에서 우리는 생각과 행위를 나눠왔고, 나와 너의 이야기를 서로 터 놓으며 주제에 따라 웃기도 울기도 하며 한 단어로 형용할 수 없는 기쁨과 슬픔의 감정을 느낌

사람들 간의 감정교류(위로, 용기, 응원, 공감)가 도시의 결핍을 채우고
연대감과 활력을 만들어 낼 수 있음을 경험

감정과 동기부여

변화를 만드는 감정 에너지
그 에너지를 동기 하는 활동
그 중심으로 사람

관계로 켜켜이 쌓이는 감정과 경험, 지혜로부터
소통을 만들어가는 우리의 좋은 도시 생활,
좋은 동네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힘.

팽창 도시에서 새롭게 만들어갈 지역의 문화는

도시를 움직이는 힘을 만들고 서로를 응원하고 지지하며
도시의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관계와 그에 더해진 어떤 힘이 아닐까

매력적인, 라이프스타일이 살아있는, 쉼이 있는 도시에 살고 싶은 욕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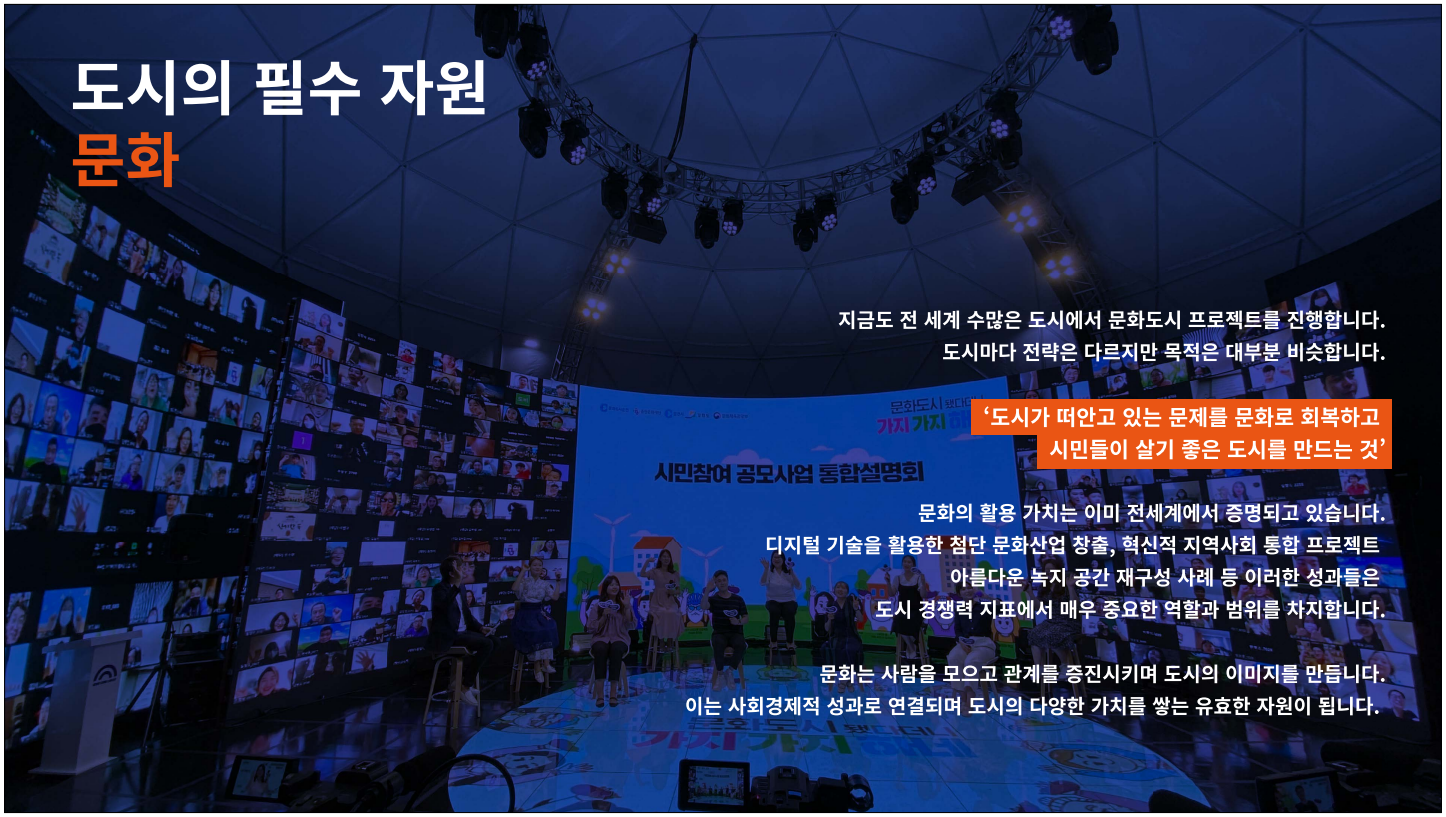
오늘은 그 관계가 만들어내는 힘을 상상하는 자리

여러분은 어떤 도시에 살고 싶은가?

AWAKE

도시를 —— 깨우는 —— 즐거운 상상

문화도시춘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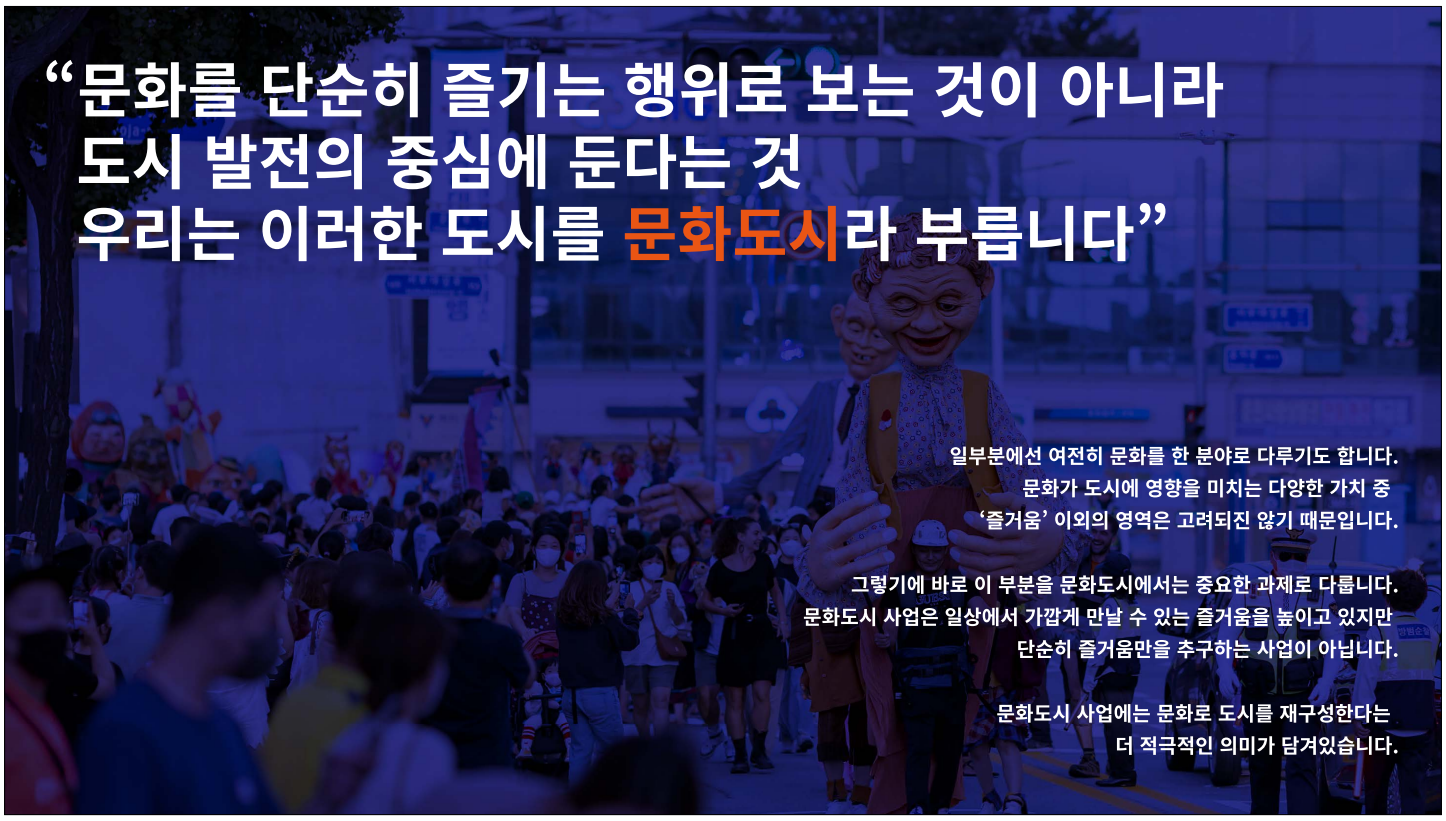
도시의 필수 자원
문화

지금도 전 세계 수많은 도시에서 문화도시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도시마다 전략은 다르지만 목적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도시가 떠안고 있는 문제를 문화로 회복하고
시민들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것’

문화의 활용 가치는 이미 전세계에서 증명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첨단 문화산업 창출, 혁신적 지역사회 통합 프로젝트
아름다운 녹지 공간 재구성 사례 등 이러한 성과들은
도시 경쟁력 지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과 범위를 차지합니다.

문화는 사람을 모으고 관계를 증진시키며 도시의 이미지를 만듭니다.
이는 사회경제적 성과로 연결되며 도시의 다양한 가치를 쌓는 유효한 자원이 됩니다.



“문화를 단순히 즐기는 행위로 보는 것이 아니라
도시 발전의 중심에 둔다는 것
우리는 이러한 도시를 문화도시라 부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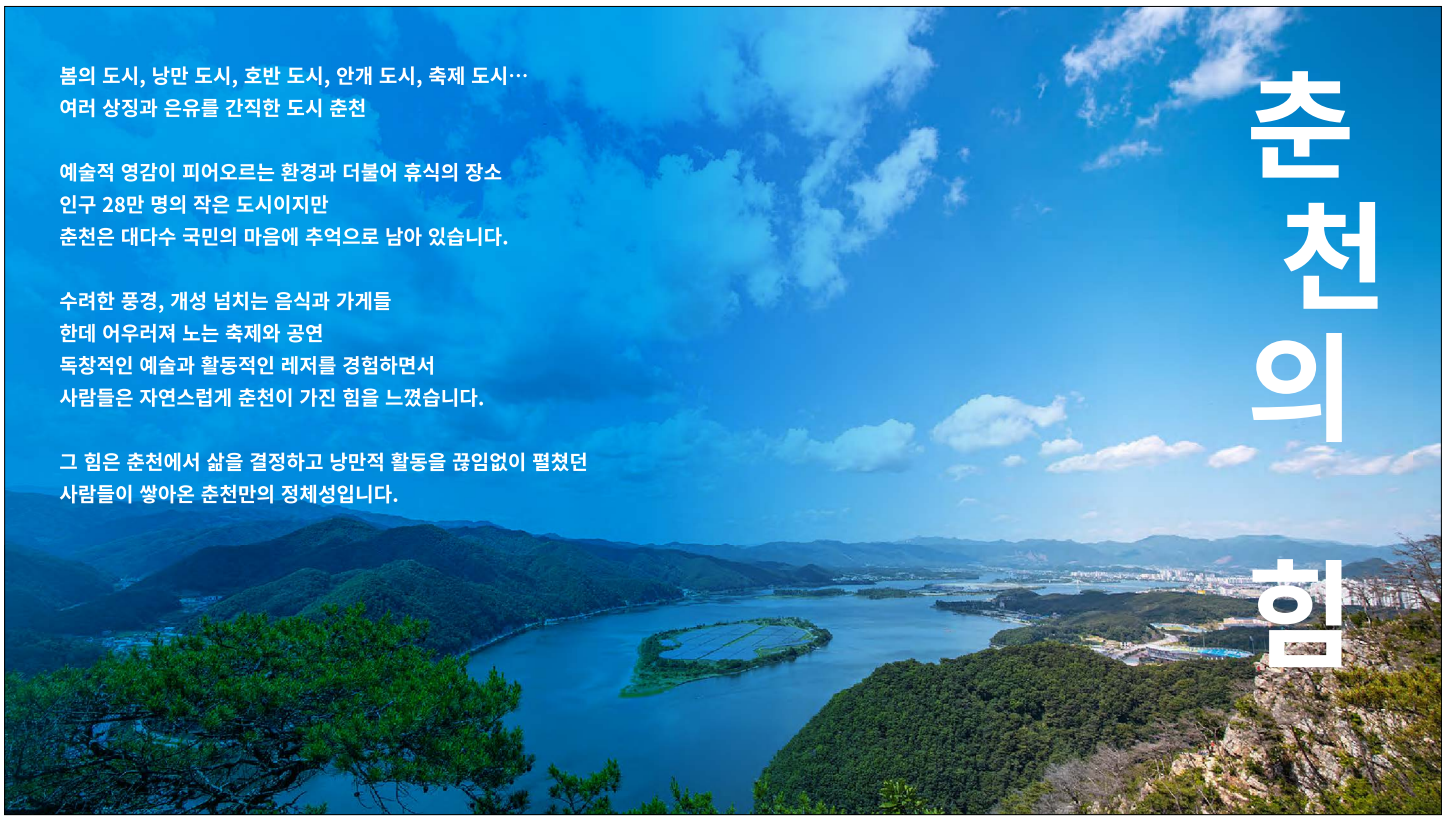
일부분에선 여전히 문화를 한 분야로 다루기도 합니다.
문화가 도시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가치 중
‘즐거움’ 이외의 영역은 고려되진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바로 이 부분을 문화도시에서는 중요한 과제로 다룹니다.
문화도시 사업은 일상에서 가깝게 만날 수 있는 즐거움을 높이고 있지만
단순히 즐거움만을 추구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문화도시 사업에는 문화로 도시를 재구성한다는
더 적극적인 의미가 담겨있습니다.

도시는 흐름과 축적의 산물

도시는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닮아갑니다.
도시에 사람들이 모이고, 그들의 경험과 지식이 쌓이면서
그 도시만의 삶의 방식으로 문화가 생성됩니다.



춘천의 힘

봄의 도시, 낭만 도시, 호반 도시, 안개 도시, 축제 도시…
여러 상징과 은유를 간직한 도시 춘천

예술적 영감이 피어오르는 환경과 더불어 휴식의 장소
인구 28만 명의 작은 도시이지만
춘천은 대다수 국민의 마음에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수려한 풍경, 개성 넘치는 음식과 가게들
한데 어우러져 노는 축제와 공연
독창적인 예술과 활동적인 레저를 경험하면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춘천이 가진 힘을 느꼈습니다.

그 힘은 춘천에서 삶을 결정하고 낭만적 활동을 끊임없이 펼쳤던
사람들이 쌓아온 춘천만의 정체성입니다.

작지만 가장 낭만적인 세계도시

지역의 일부에서는 춘천을 성장이 멈춘 도시로 인식하는 시선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인구는 정체되었고
풀리지 않는 규제로 도시의 성장을 이끄는 주요 산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이들이 도시의 성장동력과 미래를 걱정합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와는 다른 시각을 도시에 개입시켜보면 어떨까요?

호반의 도시는 춘천의 도시개발과 산업을 늦추기도 했지만
낭만의 아이콘을 얻게 만든 상징입니다.

새로움이란 새롭게 만드는 것 뿐 아니라
기존의 것을 새롭게 해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가장 낭만적인 풍경과 낭만적인 사람을 가진 도시
품격이 느껴지는 세계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우리는 도시의 새로운 가능성을 깨우려 합니다.

AWAKE

도시를 —— 깨우는 —— 즐거운 상상

도시문화 어젠다 리포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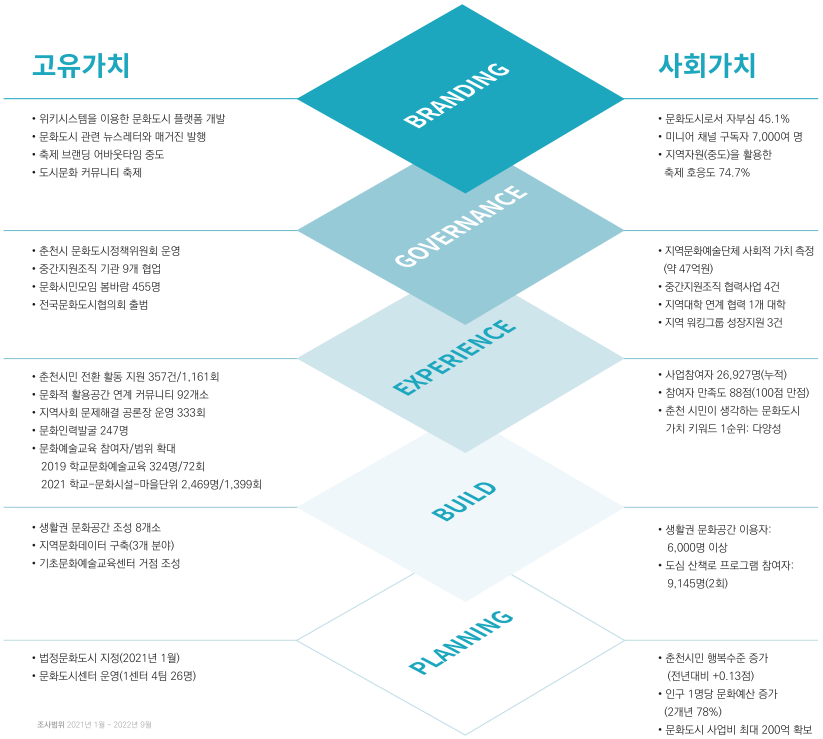
‘문화는
과정이
만들어내는
결과입니다’
나로부터 출발한 전환의 경험이 도시의 라이프스타일로
춘천의 새로운 정체성으로 발현되어 우리만의 도시감각을 깨우려 합니다.
동네의 안팎에서는 세대를 넘어
함께 공감하고 이야기하는 공론장과 활동이 펼쳐집니다.
여기서 마주한 도시의 중요한 어젠다를 실행하기 위해
문화로 도시를 다시 정의하고
문화로 도시를 깨우는 즐거운 상상을 시작합니다.
도시를 깨우는 즐거운 상상이 바로 ‘AWAKE’ 입니다.
우리가 다시 뛰어야 할 방향이자 전략이며, 행동입니다.
‘함께 상상하면 춘천의 잠재력이 깨어납니다’

2020년
문화도시 예비사업
의견수렴 136회
시민엽서 700건
100명의 심층인터뷰
2021년
법정 문화도시 1년
지역사회 문제해결 공론장 144회
개인의 전환활동 지원 192회
사업 참여자 12,456명
2022년 상반기
법정 문화도시 2년
시민협의체 출범
지역사회 문제해결 공론장 189회
개인의 전환활동 지원 165회
문화적 활용공간 발굴 92개 소
사업 참여자 14,471명
2022년 상반기
AWAKE
도시문화 어젠다 리포트
100회의 시민 공론장 84회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8회
전문가 의견수렴 8회
도시문화 공론장/의견수렴 운영
경험가치 축적
문화 고유의 가치 | 문화의 사회가치
그간의 문화도시 추진과정을 통한
시민의견 반영, 도시 흐름 진단,
성과 방향 제시 필요성 대두
2023년~
문화도시 사업 갱신
글로벌 어젠다와 도시현안을 중심으로 사업 재편성
2025년 이후
미래계획 수립
계획의 성과를 확인하고 다시 미래를 준비

지금까지 문화도시 사업이 집중한 것

: 문화권 내 경험가치 창출

지역의 쓰임이 되는 문화의 고유가치와
다양한 관계 자본을 엮어내는 사회가치로
도시의 정체성을 찾아가기



문화도시 사업의 가치창출 성과

01 재난 시대의 유연한 대응

코로나19로 급속도로 달라진 삶. 문화도시 춘천은 온라인 기술을 활용해 많은 시민의 안부를 물었고 춘천에 활력을 만드는 다양한 방구석 콘텐츠와 심리방역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비록 많은 문화시설은 문을 닫아야 했지만 30개 이상의 프로젝트로 약 12,000명의 시민과 만났습니다. 그 결과로 도시의 문화와 여가 환경의 행복 수준은 코로나 이전과 비교해 더 높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시민참여 공모사업 통합설명회

02 경쟁 우위의 핵심 자원으로 지속가능한 축제 만들기

과거 춘천의 축제가 태동한 섬의 가능성을 깨닫고 중도를 자연과 예술이 공존하는 섬으로 만드는 프로젝트를 펼쳤습니다. 호반의 도시 춘천에서만 볼 수 있는 자연의 아름다움에 예술을 덧입힌 이 프로젝트는 시민들에게 높은 만족도와 호응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중도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활동은 문화도시 춘천의 대표 이미지이자 사람들을 이끄는 경쟁 우위의 핵심 자원이 될 것입니다.

예술섬 중도 '다시, 숲'

03 다양한 주체들과 함께 해결 과제를 발굴

도시재생, 사회혁신, 먹거리, 청년, 마을자치 등 도시를 변화로 이끌 다양한 주체들과 함께 '전환'이라는 가치와 '문화안전망'이라는 실행 과제를 두고 다양한 논의를 이어왔습니다. 도시에 방치된 빈 곳을 개선하고, 마을 곳곳에 흩어진 문제와 그 해결 과정을 모색하는 일련의 프로젝트는 더 나은 도시를 향한 바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문화도시 시민협의체 포럼

생활 곳곳에 펼쳐진 문화도시 사업

나의 취향이나 취미를 마음껏 표출하거나,
우리가 직접 축제를 만듭니다.
내가 사는 곳을 더욱 이해하기 위해
여러 사람과 대화하고, 직접 도시를 탐색하거나
평소에 불편하게 느낀 도시 문제를 해결합니다.
우리 도시를 위해 하고 싶었던 활동을
얼마든지 실현할 수 있습니다.

자치활동

지역·마을에 필요한 문화와 관련한
협의·토론·규범 등의 자치활동

— 마을에 필요한 돌봄 활동 찾아내기
— 공동의 도시 문제 함께 고민하고 풀기
— 문화시민단체 모임에 직접 참여하기
— 내 공간을 동네 아지트로 만들기
— 동네를 위해 하고 싶은 잔소리하기
— 도시를 산책하고 기록하기

적응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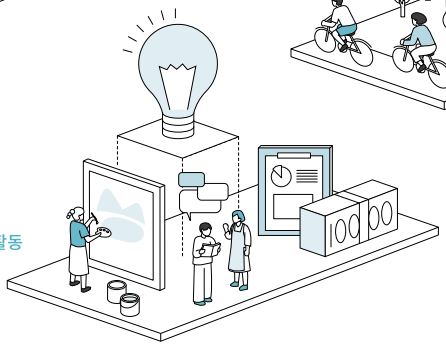
문화권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친목·환대·학습·상담·탐방 등의
적응활동

— 다름을 존중하는 시민의식 기르기
— 자전거 애호가들과 도시 문화 탐방하기

창의활동

지역·마을의 특색있는
문화를 촉진하는
아이디어·실행·평가 등의 창의활동

— 백만 원으로 하고 싶은 프로젝트 실현하기
— 내가 그린 문화도시 춘천 자랑하기
— 빈 공간을 새로운 공간으로 변신시키기



확산활동

문화활동의 파급력을 확산하는
이벤트·프로모션·축제·발표
·의례 등의 확산 활동

— 커뮤니티 축제 만들고 참여하기
— 예술축제 만들고 참여하기

01

바짝 다가온 초고령사회

매년 늘어가는 은퇴자

“자식들은 명절때나 보지, 고독사 문제?
이런 거 해결하려면 이야기 상대가 있어야 해.”

-2기 동네지식인 고령화 공론장 중에서

02

자동차는 하루에 95% 시간을 운행하지 않는다

“버스가 없으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계속 차만 많아지고 그러니까 도로는 더 막히고 반복이죠.”

-2기 동네지식인 교통 공론장 중에서

03
첨년몰
비어가는 구도심에
떨어지는 활력
"정주 여건이 불편하니 구도심 이탈이 이어지죠.
교통, 복지, 교육, 낙후된 이미지,
부정적인 평판 어딜가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2기 동네지식인 소멸도시 공론장 중에서

04
외출은
줄고
아픈 사람은
늘어간다
"코로나19 시기, 50대 이상 춘천시민 활동 57% 감소,
물리적 거리두기가 마음의 거리와 크게 다르지 않아요."
-도시가 살롱 1기 참여자 후기 중에서

05

춘천에 살아야만 시민인가? 관계인구는 누구인가?

“저는 춘천에서 태어나 대학까지 30년 가까이 살았는데, 사회에 나오고 나서 춘천이 어떤 도시인지 의문이 들더라고요.”

-봄바람 대화모임 2회차 중에서

06

아름다운 자연을 현명하게 활용하는 방법

“경관을 해치는 높은 아파트나 건물들이 들어서는 게 춘천의 정체성을 빼앗는 것 같아요. 춘천의 아름다운 풍경이 가장 문화도시다운 춘천의 모습입니다.”

-봄바람 대화모임 3회차 중에서

why

춘천에 중요한 과제입니까?

도출한 중점 과제는 춘천의 주요 현안을 다루고 있습니다.
문화와 예술 영역으로 바람직한 해법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how

문화는 과제 해결에 어떻게 접근합니까?

문화도시 사업은 콘텐츠와 관계 중심의 접근 방법을 모색합니다.
많은 사람의 공감과 관계, 그곳에서 생긴 이슈가 도시를 전환합니다.

what

과제 해결은 무엇으로 구체화할 수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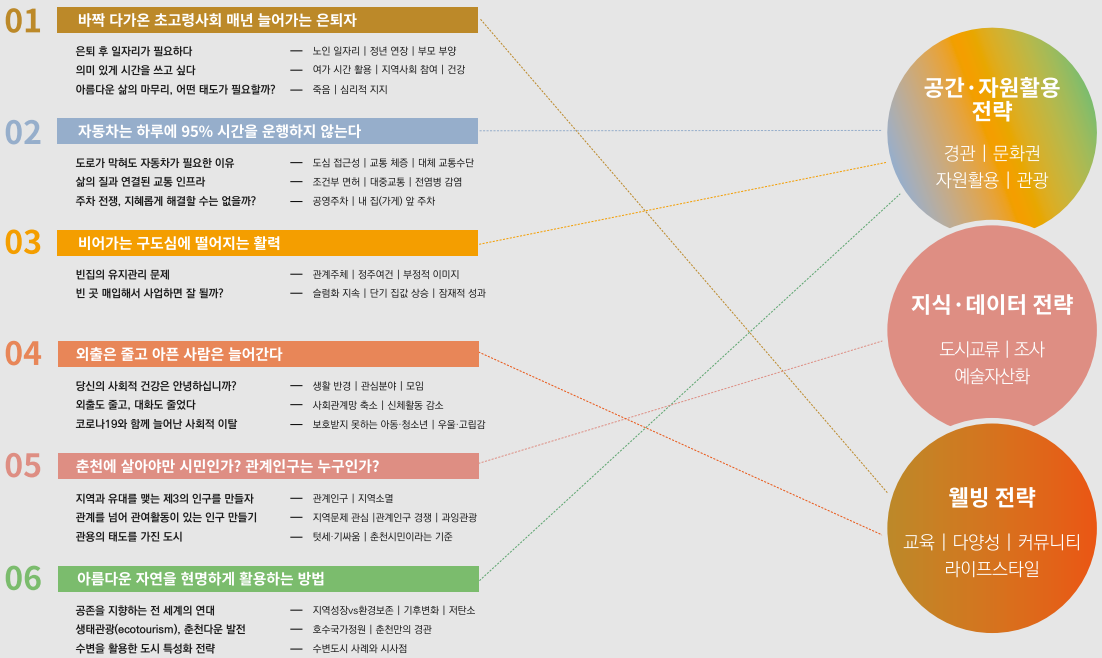
문화 사업의 성과가 가려지는 이유는 과정과 지표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문화도시 사업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습니다.
1. 객관화된 성과지표, 2. 눈에 보이는 결과물, 3. 결과를 지지하는 다수의 구성원

어웨이크 춘천은 시민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FRAME WORK

주요 전략 도출

다양한 이슈의 특성과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전략 영역을 도출했습니다.



STRATEGY PAPER ON THE FUTURE

전략은 'Stream(흐르는 물)'의 형태로 각각의 전략이 도시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설계합니다.

PLACE STREAM

01 경관 전략
— 10분 문화안전망

도보 10분 거리(약 800m) 범위에서 걷고 싶은 보행로와 장소성이 드러나는 거리와 골목을 만듭니다. 차별화된 경관 브랜딩을 형성합니다.

02 문화권 전략
— 내 집 앞 경관 만들기

내 집 앞 골목이나 거리를 주민 스스로 만듭니다. 욕구를 충족하는 관점이 아닌 욕구를 합의하는 과정으로 공공영역의 경관을 결정합니다.

03 자원 활용 전략
— 의암호와 예술의 융화

호수에 얽힌 지역문화 정체성을 바탕으로 호수와 예술의 아름다움이 융화한 춘천만의 축제를 모두에게 선보입니다.

04 관광 전략
— 호수와 도심권 여행루트 연결

호수를 기반한 생태관광뿐 아니라 춘천의 테마파크와 도심 속 문화공간까지 경로를 연결합니다.

DATA STREAM

05 도시 교류 전략
— 어젠다 생산과 교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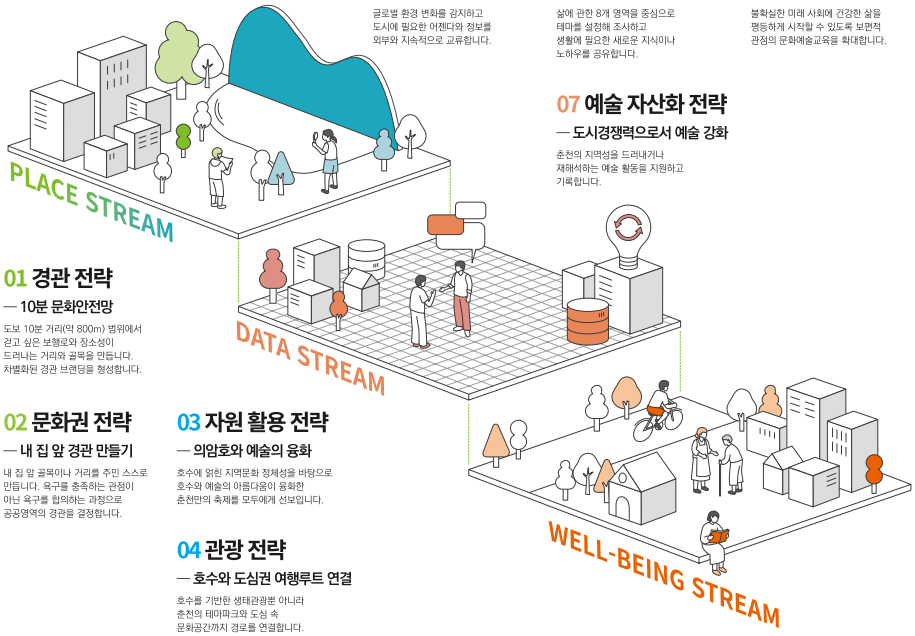
글로벌 환경 변화를 감지하고 도시에 필요한 어젠다와 정보를 외부와 지속적으로 교류합니다.

06 조사 전략
— 테마형 리서치와 공개

삶에 관한 8개 영역을 중심으로 테마를 설정해 조사하고 생활에 필요한 새로운 지식이나 노하우를 공유합니다.

07 예술 자산화 전략
— 도시경쟁력으로서 예술 강화

춘천의 지역성을 드러내거나 재해석하는 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기록합니다.



WELL-BEING STREAM

08 교육 전략
— 보편적 문화예술교육

불확실한 미래 사회에 건강한 삶을 영등하게 시작할 수 있도록 보편적 관점의 문화예술교육을 확대합니다.

09 다양성 전략
— 건강한 사회와 문화 다양성

지역사회 구성원 사이에서 원만하게 관계를 증진하고 갈등을 해결합니다. 건강한 사회 균형을 위한 인식과 태도를 제고합니다.

10 커뮤니티 전략
— 심리방역 및 돌봄 강화

외로움, 고립, 소외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질병에 대응할 수 있는 커뮤니티와 돌봄 프로젝트를 지속합니다.

11 라이프스타일 전략
— 취미로 성장하는 도시

삶의 질을 높이는 취미활동과 개인의 자기 계발 활동을 확산하고 문화산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모색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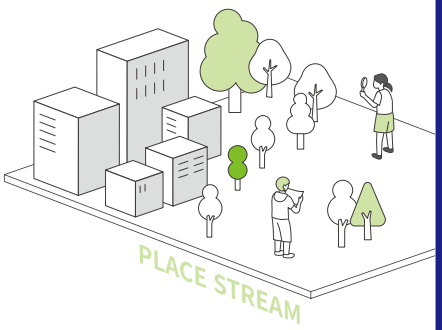
PLACE STREAM

01 경관 전략
02 문화권 전략

01 중심권 강화

매력적인 장소로 도시를 깨우다

계속해서 사람이 모이는 곳, 다시 오고 싶은 곳으로 진화합니다.



거리와 골목에 정체성을 입힌다

— 집 앞 거리의 재설계
— 거리 키트 개발
— 결집되는 장소로 연결 : 이웃과 가까운 문화아지트
— 협력 네트워크 구축 : 도시재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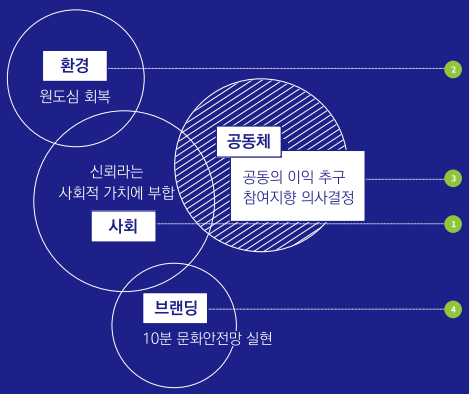
시민의 주도로 거리와 골목을 만든다

— 문제와 대안 탐색을 위한 대화
— 결속된 공동체 조직 : 봄바람 유닛
— 다른 집 앞 거리 조성자들과의 교류 : 동네별 네트워크
— 동네 가꾸기 : 마을의 역사와 자산을 반영

오픈 스페이스를 활용해 공동구역을 만든다

— 집 앞 거리를 연결하는 장소 포인트 탐색
— 오픈 스페이스 활용 프로젝트 전개
— 10분 문화안전망 구역화

결과 : Outcome



가치창출 영역

1 이웃 간의 신뢰도 수준 향상
1 커뮤니티 공간, 시민공간 확보
1 인접 기관과의 연계사업 발굴
2 원도심 재생 실천
2 깨끗한 구역 확보
2 구역 내의 친환경 교통수단 확보
2 마을의 다양한 주체의 협의
3 거주지 지속가능성에 대한 교육
3 시민협의체 활동의 규모 성장
4 10분 문화안전망 물리적 접근성 확보
4 문화도시 혁신 사례 이미지 확보
4 콤팩트 도시 지향

PLACE STREAM

03 자원활용 전략
04 관광 전략

02 자원 특성화

호수를 활용해 도시를 깨우다

지금까지 물을 통제했다면 이제는 물을 활용합니다.

푸른 호수에 예술적인 색을 입히고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예술로 호수를 재해석한다

— 호수의 맥락을 조사한다 : 물에 대한 포괄적인 해석
— 호수를 활용한 예술축제를 만든다
— 호수의 상징을 만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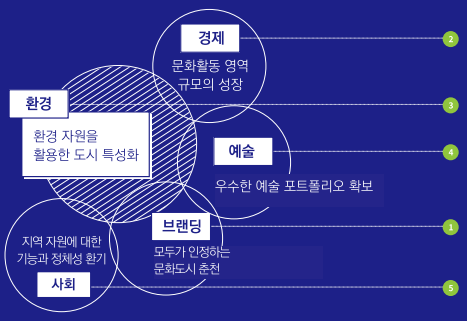
호수에서 도심까지 접근성을 계획한다

— 도심권 연결 공간에 표식을 설치한다
— 다른 기관이나 조직들과 표식을 공유한다

외부에서는 유입, 내부에서는 순환 효과를 만든다

— 물가에 쉼과 휴식을 만들고 사람들을 초대한다
— 시민들에게 도심 투어 경험을 제공한다

결과 : Outcome



가치창출 영역

1 이웃 간의 신뢰도 수준 향상
1 커뮤니티 공간, 시민공간 확보
1 인접 기관과의 연계사업 발굴
2 원도심 재생 실천
2 깨끗한 구역 확보
2 구역 내의 친환경 교통수단 확보
2 마을의 다양한 주체의 협의
3 거주지 지속가능성에 대한 교육
3 시민협의체 활동의 규모 성장
4 10분 문화안전망 물리적 접근성 확보
4 문화도시 혁신 사례 이미지 확보
4 콤팩트 도시 지향

DATA STRE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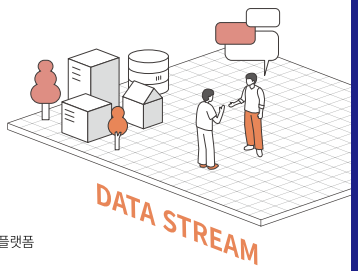
05 도시교류 전략
06 조사 전략
07 예술 자산화 전략

03 정책 공론화 싱크탱크 역할로 도시를 깨우다

**도시의 관계망은 점점 복잡해지고 어려워집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사업을 추진하려면
공통의 합의와 새로운 지혜를 찾아야만 합니다.
지역은 물론 지역 밖의 세계와 소통하며 전략을
세우고 상황에 맞는 방법을 찾아 나갑니다.**

글로벌 어젠다로 여러 도시와 소통한다

— 문화 관련 전 세계 어젠다와 자료를 수집한다
— 여러 도시 주체들과 어젠다를 논의한다
— 중요한 어젠다를 사업에 반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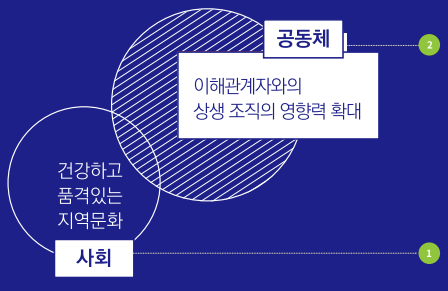
생활과 예술 영역의 데이터를 구축하고 연구한다

— 생활 관련 테마형 리서치를 실행한다
— 생활 관련 데이터와 지식을 구축해서 공유한다 : 지역 생활의 종합 데이터 플랫폼
— 지역 예술이 가진 도시 차원의 가치와 잠재력을 드러낸다
— 연구결과를 시정부에 정책으로 제언한다

함께 일하고 싶은 조직으로 문화도시센터의 파트너십을 높인다

— 프로젝트 리더의 업무역량을 높인다
— 지역 워킹그룹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
— 문화도시 관련 거버넌스와 신뢰수준을 진단하고 결과를 보완한다

결과 : Outcome



가치창출 영역

1 문화도시 본래의 목적을 계획에 충실하게 반영
1 지역 상황에 더 넓고, 깊고, 연속적인 영향력 확보
1 시민주도의 공론화 모델 구현
2 문화활동 분야의 새로운 리더 출현
2 정책과 사업 연계 협력도시 증가
2 운영 조직의 안전성과 의사결정의 투명성 증가

누구나 누리는 취미활동이
서로를 안전하게 연결하는 도시,
독창적인 시도가 유쾌하게 등장하는 도시가
진정한 문화도시입니다.

미래 시민의 상(像)을 문화예술교육 전략에 반영한다

— 세대 역량을 반영한 문화예술교육 중기 계획을 만든다
— 아동의 관점을 반영한 경험지식형 문화예술교육을 도입한다
— 세대 역량을 반영한 교육 프로그램과 캠페인을 운영한다 : 관계다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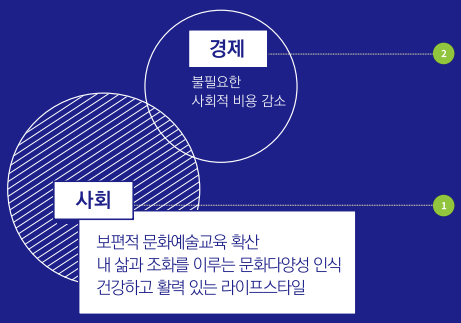
문화 커뮤니티의 지속가능성을 만든다

— 지역의 재미있는 모임과 재미있는 사람들을 소개한다
— 거주지가 아닌 활동지를 기준으로 커뮤니티를 지원한다
— 커뮤니티가 지속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든다

작은 성공의 경험을 맛보는 취미활동을 지원한다

— 춘천시민의 관심사와 라이프스타일을 찾는다
— 은둔이나 고립 위험 대상을 찾아 환경을 개선한다
— 취미활동 사업참여자의 자기건강만족도를 높인다

결과 : Outcome



가치창출 영역

1 문화예술교육 수혜자 수 증가
1 미래에 꿈이 있다고 응답하는 아동의 증가
1 도시 전체의 문화다양성 인식 증가
1 취미, 여가활동에 대한 제약 요인 감소
1 취미, 여가활동을 통해 시민들의 정신건강 증진
2 시간, 돈, 사회적 위험에 대한 긴장 등 부정적 감정 영향이 감소

문화도시 사업이 도시에 미치는 영향력

: 방향은 명확하게, 영향력은 더 넓게

어웨이크 춘천은 중심권 강화, 자원 특성화, 정책 공론화,생활권 유입이라는 4가지 전략 목표로 실행범위를 구체화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사회·경제·환경·공동체·예술·브랜딩으로 도시에 영향을 미칩니다.

사회

누구나 자신이 좋아하는 분위기로
도시의 감성과 환경을 갖춥니다.
이러한 분위기가 공감되는 사회가 문화도시
가 지향해야 할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공동체

수평적 커뮤니케이션을 지향하며,
실현 가능한 공동의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합니다.

경제

갈등과 대립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킵니다.
문화예술 활동의 사회적 가치를
드러냅니다.

예술

예술의 가치를 지역사회에 확대합니다.
예술이 도시에 개입하여
다양한 변화를 일으킵니다.

환경

춘천의 호수를 활성화하고 관광과
내수 소비의 편익을 발생시킵니다.
원도심을 개선하는 과정을 모색합니다.

브랜딩

문화도시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도시가 춘천이 되게 합니다.
브랜드 가치를 인지할 수 있는 장치를
도시 곳곳에 설치합니다.

SOCIAL IMPACT

성과 타임라인 : 사회 경제

사회성과는 크게 (1) 사회적 가치 목적에 부합, (2) 지역 자원에 대한 기능과 정체성 환기, (3) 건강하고 품격있는 지역문화, (4) 보편적 문화예술교육 확산, (5) 내 삶과 조화를 이루는 문화다양성 인식, (6) 건강하고 활력있는 라이프스타일을 담고 있습니다. 경제성과에서는 (1) 문화활동 영역 규모의 성장, (2)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감소를 담고 있습니다.

사회

	2023년 상반기	2023년 하반기	2024년 상반기	2024년 하반기	2025년 상반기	2025년 하반기
중심권 강화	이웃 간의 신뢰도 수준 향상					
	커뮤니티 공간, 시민공간 확보					
				인접 기관과의 연계사업 발굴		
자원 특성화	오랜 삶의 터전으로서 안정감, 자원, 정체성 인식					
		여가활동 인프라 확보				
			다른 지역과 차별되는 지역 고유의 매력 요소 발굴			
정책 공론화	문화도시 본래의 목적을 계획에 충실하게 반영					
				지역 상황에 더 넓고, 깊고, 연속적인 영향력 확보		
			시민주도의 공론화 모델 구현			
생활권 유입	문화예술교육 수혜자 수 증가					
		미래에 꿈이 있다고 응답하는 아동의 증가				
			도시 전체의 문화다양성 인식 증가			
		취미, 여가활동에 대한 제약요인 감소				
		취미, 여가활동을 통해 시민들의 정신건강 증진				

경제

정책 공론화			문화도시 사업전과 비교해 문화활동가, 단체가 인식하는 지역문화산업 규모의 성장			
생활권 유입	시간, 돈, 사회적 위험에 대한 긴장 등 부정적 감정 영향이 감소					

SOCIAL IMPACT

성과 타임라인 :
환경
공동체
예술
브랜딩

환경성과로 (1) 원도심 회복, (2) 영감자원을 활용한 도시특성화를 담고 있고,
공동체성과는 (1) 공동의 이익을 추구, (2) 참여지향적 의사결정 (3) 이해관계자와의 상생, (4) 조직의 영향력 확대를 담고 있습니다.
예술성과는 (1) 우수한 예술 포트폴리오 확보, 예술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담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브랜딩 성과는 (1) 10분 문화안전망 실현, (2) 모두가 인정하는 문화도시 춘천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023년 상반기	2023년 하반기	2024년 상반기	2024년 하반기	2025년 상반기	2025년 하반기
중심권 강화		원도심 재생 실천				
			깨끗한 구역 확보			
			구역 내의 친환경 교통 수단 확보			
자원 특성화	자연 경관 보호의 정당성 확보					
중심권 강화	마을의 다양한 주체의 협의					
		거주지 지속가능성에 대한 교육				
	시민협의체 활동의 규모 성장					
정책 공론화	문화활동 분야 새로운 리더의 출현					
		정책과 사업 연계 협력 도시 증가				
	운영 조직의 안정성과 의사 결정의 투명성 증가					
자원 특성화		우수한 예술 포트폴리오와 실험과 확보				
			예술가 사이의 파트너십 형성과 네트워크 영향력 증가			
				예술의 사회적 성과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이해를 촉진		
중심권 강화			10분 문화안전망 물리적 접근성 확보			
				문화도시 혁신 사례 이미지 확보		
자원 특성화					콤팩트 도시 지향	
				자연과 공존하는 환경 친화적 도시 이미지 확보		
				아름답고 품격있는 호수 경관 조성		

도시의 진정성

지역(도시)의 정체성이 이렇다 말하기 어려운 이유는
외부에서 그 도시를 볼 때와 내부에서 볼 때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춘천에는 의암호가 있습니다. 매일 의암호 주변을 산책하는 사람에게
그 풍경은 일상이지만, 외부의 시선에서 보면 새로운 감각과 경험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의암호 풍경이 정통성 있는 본연의 풍경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평범한 일상의 풍경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온갖 프렌차이즈 상점들로 가득한 거리가 여느 도시와
다르지 않다면, 동네의 작은 가게와 상점이 정체성을
온존할 수 있도록 활성화 해야합니다. 이런 감각들이
연속성을 가지고 나타날 때 도시의 진정성을 논의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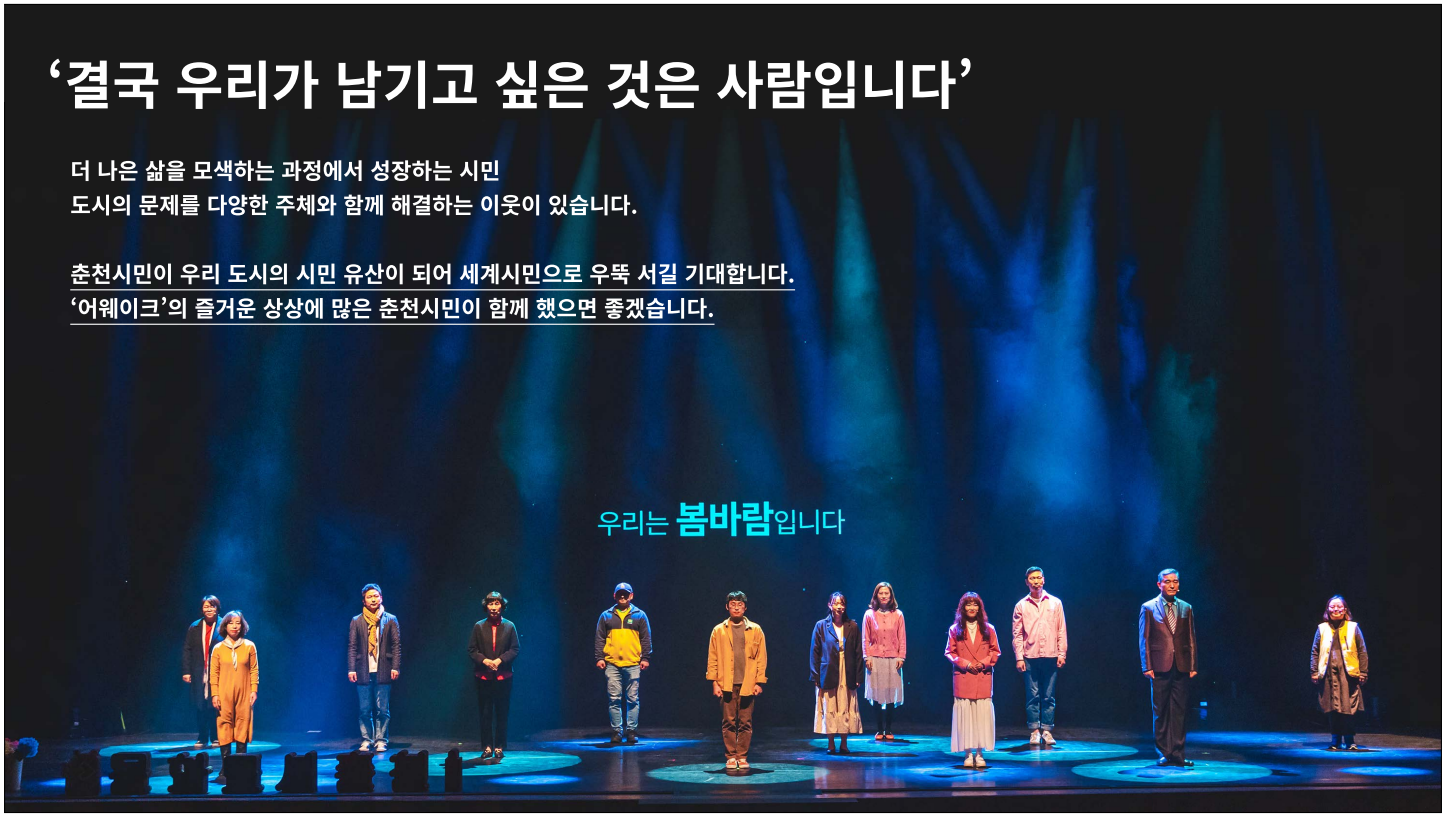
문화도시가 되기 위한 과정에서 가장 안좋은 상황은
사업 평가와 이슈를 고려하여 우선순위기 되는 해답만을
찾으려는 것입니다.

도시의 다양성

문화도시 조성의 자료를 보면 '도시는 흐름과 축적의 산물이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도시는 역사, 인구, 경제와 같은 흐름이 쌓여가며 성장합니다. 이것을 수직성장이라고 할 때,
동시에 생성되고 사라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문화나 유행 같은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수평성장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도시는 수직성장과 수평성장의 결과입니다.
문화도시가 도시의 수직성장을 주도기는 어렵습니다. 문화도시의 목표는
더 넓게 도시의 이면을 드러내고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도시의 다양성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문화도시는 도시 수직성장의 밑거름이 되는 문화를 진정성 있게 탐색합니다.


‘결국 우리가 남기고 싶은 것은 사람입니다’
더 나은 삶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성장하는 시민
도시의 문제를 다양한 주체와 함께 해결하는 이웃이 있습니다.
춘천시민이 우리 도시의 시민 유산이 되어 세계시민으로 우뚝 서길 기대합니다.
‘어웨이크’의 즐거운 상상에 많은 춘천시민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봄바람입니다

21세기 도시 생존 필수조건으로서의 지역문화

- 2022년 문화 모심기 프로젝트 *'김포의 색을 찾습니다!'* 를 중심으로

이창수 (팀 '결의 만남')

1. 들어가는 말

문화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고 복잡하다. 영국의 문화 연구가 레이먼드 윌리엄스는 "문화는 영어에서 가장 복잡한 단어 두셋 중 하나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 이러한 '문화'에 '지역'이라는 특수성까지 결합한 '지역문화'에 접근하려면 미지수에 관한 차수가 높은 고차방정식을 대할 때 가지는 겸허한 자세가 필요하다.

김포는 50만을 넘어 70만 인구 시대를 향하고 있다. 단기간의 양적 성적은 도시발전의 동력이 되기도 하지만, 그에 따르는 다양한 계층의 다양한 요구가 다각적으로 발생하고 그것은 지역 간 또는 지역 내 갈등으로 표출될 가능성이 크다. 갈등(葛藤)의 한자 풀이는 칡과 등나무가 얽혀있는 형상인데, 상황에 따라 공생관계를 촉진하는 의미로도 쓰이지만, 대부분 그 반대의 경우인 첨예한 대립으로 풀어낼 수 없는 상황을 나타낸다. 악성 갈등은 일부 혐오를 부추기고 더 나아가 21세기 도시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21세기 도시 생존을 위해 성숙한 시민의식의 확보는 자명하다. 그 자명한 일들을 도모하기 위해 김포문화재단은 시민들이 직접 기획, 운영하는 '문화 모심기' 지역문화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2022년 문화 모심기에 참여한 팀 '결의 만남'은 급속도로 팽창하고 있는 김포와 그 시민들 속에서 동시대 김포 지역문화에 접근하고자 하였다. 이 글은 2022년 문화 모심기 프로젝트 '김포의 색을 찾습니다!'의 사례를 통해 1) 지역문화의 이해과정과 2) 급속도로 팽창하는 도시의 안전벨트로서 지역문화의 역할을 고찰하려 한다.

2. 본말

'... 처음 김포의 색을 찾는 프로젝트라는 말을 듣고 적잖이 당황스러웠다...
그것은 그만큼 모호하고 추상적인 과제였다.' - 윤주 작가 (자문의 글 中)

1)

김포 ‘북부권’은

통진, 월곶, 하성, 대곶으로 이루어져 있다. 김포 면적의 70%로 가장 넓은 권역이지만, 인구는 그와 반대로 가장 적다. 군사시설과 산업단지가 모여 있는 ‘북부권’은 무엇보다 서울 접급성이 다른 권역에 비해 낮다. 하지만, 조강과 애기봉, 문수산성 등 유려한 자연경관과 역사적 가치, 평화를 염원하는 미래의 가치가 공존하고 있다.

팀‘결의 만남’이 김포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며 수집했던 자료들이 대부분 북부권역과 관련된 것이었다. 그만큼 역사적으로 김포를 대표하는 권역이었음에도 그에 상응하는 도시 기반시설과 교통 환경이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웠다. 하지만, 이러한 단편적인 인식으로 지역과 지역민을 일반화하는 것을 문화기획자들은 경계해야 한다. 그것을 팀‘결의 만남’은 워크숍에 참여한 북부권 시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깨닫게 되었다.

총 2회로 기획된 워크숍은 참여자들이 생각하는 김포의 색을 만들어 보고, 그것으로 천을 염색하고 글을 쓰고 꾸미는 것이었다. 프로그램 진행을 맡은 이지현(결의 만남)은 김포의 지정학적 의미와 성장 과정, 급속한 인구 유입과 그에 따른 생활환경의 권역별 불균형 등의 정보를 참여자들과 공유했다. 이후, 질의와 문답을 통해 참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김포의 기억과 추억을 소환시켰다.

워크숍 결과물을 통해 주목할 만한 것은, 연령별, 성별과 관계없이 북부권 시민들의 김포 인식은 ‘자연’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도시의 개발, 팽창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그들의 김포에 대한 인식은 아름답고 소중한 것들이었다. 물론, 참여자들이 북부권 시민들을 대표한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15명의 북부권 시민들과의 소통과 공감, 그리고 이해의 과정은 참여자뿐 아니라 팀‘결의 만남’이 살아있는 지역문화를 체험한 시간이 되기도 하였다.

‘동네에 조명탄이 터지면, 밤이지만 낮보다 환한 날들이었지.’
- 조화자 (2회 컬러 워크숍 中)

2)

모든 색은 다의적이다.

색은 자연발생적이며 과학의 영역에서 시작되지만, 색의 해석은 문화적이며 인문학적 영역에서 그 의미를 맺는다. 빛은 파장에 따라 나뉘고, 생물은 광(光)수용체에 따라 그 인식이 나뉜다. 인간도 본인의 광수용체의 특성에 따라 미세하지만, 색을 다르게 인식한다. 색은 집단, 계층, 민족, 종교 등을 통해 다양한 의미를 발생시키고 그것은 다시 한 개인이 색을 받아드리는데 영향을 끼치게 된다. 그래서 같은 색이라도 생물마다 다르게 보이고 시대에 따라 다양한 의미의 생성과 변화를 거듭한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 모든 색은 빛에서 시작된다.

팀‘결의 만남’은 그러한 색의 다의성을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수용하였다. 또한, 소통과 공감, 이해의 과정에서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표현’에 있어 색을 활용하고 그것으로 서로의 존재를 인식하는 것은 워크숍 동안 가장 빛나는 순간이었다. 이러한 빛나는 순간과 그러한 기회를 만들어 내는 것이, 지역 문화기획자의 몫이라는 것을 워크숍을 통해 확인하는 자리였다. 색의 다의적인 특성은 21세기 시민사회의 다양성을 상징하며, 참여자들의 전시회는 시민들이 어울려 살아가는 현장이며, 이해의 과정이 되었다. 비록, 김포 북부권 시민 15명 참여자의 작은 성과였지만, 이러한 문화기획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져 더 많은 김포시민이 서로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3. 나가는 말

‘팽창’이라는 단어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한계를 넘게 되어 외부의 충격이나, 내부의 원인으로 폭발할 수 있다는 위험성 때문이다. 21세기 사회는 개인과 집단이 각자의 욕망을 위해 무한경쟁을 벌이고 있는 현장이다. 김포시는 급속한 인구 유입으로 빠른 양적 성장을 이루어 내고 있으며, 그에 따른 다양한 요구 또한 쏟아지고 있다. 갈등은 이제 숙명처럼 우리 앞에 나타나기 마련이며, 악성 갈등은 도시 생존에 심각한 위협이 되기도 한다.

김포의 색을 찾는 시간은 하나의 색을 찾는 시간이 아니라, 시민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존재를 서로에게 인식하는 시간이었다. 또 한, 지역에 대한 인식을 나누는 공론의 장이기도 했다. 그리고 전시회 및 아카이빙을 통해 시민들은 추억을 공유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속적인 문화기획이 지역문화를 활성화하고 성숙한 시민사회로의 김포의 질적 성장을 이루어 가는데 이바지할 수 있길 바라며 이 글을 마치려 한다.

모든 색은 빛에서 시작되고,
김포의 색은 시민들에게서 시작된다.

주제 2

지역문화정책 파트너로서 시민력의 필요성

발제 | **송 은 정** 완주문화재단 사무국장

토론 | **배 현 명** 2022 문화모심기 시민문화프로젝트 '김포 하부타' 기획자

방 지 웅 2021 문화모심기 시민문화프로젝트 '고롱고롱김포' 기획자

문화란, 인간이 주어진 자연환경을 변화시키고, 본능을 적절히 조절하여 만들어낸 생활양식과 그에 따른 모든 산물을 말하는 것으로, 법령에서는 '문화예술, 생활양식, 공동체적 삶의 방식, 가치체계, 전통 및 신념을 포함하는 사회나 사회 구성원의 고유한 정신적·물질적·지적·감성적 특성의 총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화기본법 제3조)

즉, 인간의 생활방식을 총체적으로 아우르는 이러한 개념적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시민이 생각하는 '지역문화'란 모름지기 매우 다양한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유형의 무엇으로 특정하여 설명할 수 없는 '문화'를 지역사회 구성원과 어떻게 공유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지역문화정책 파트너'로서의 시민 한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파트너들이 더 많아질수록 시민주도의 문화도시는 더욱 성숙해갈 수 있습니다.

올해 총 29명의 김포 시민들은 바로 그 방법을 찾아보고자 김포문화재단 2022 문화모심기 「문화모(人)Zip.」 사업을 통해 모이게 되었습니다. 비록 재단의 주관 아래였을지라도, 3명의 멘토단과 함께 10회의 워크숍을 거쳐 총 24명의 시민문화기획자가 7가지 각기 다른 문화프로젝트 추진을 완료했습니다. 1년의 긴, 혹은 짧은 기간 내에서 서로 크고 작은 고민들을 나누며 보낸 시간이 지역문화 정책의 파트너로서 성장하는데 분명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그 진솔한 성장스토리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생활 속 문화를 이웃과 나누다, 문화이장

생활속 문화를 이웃과 나누는 문화이장

2022.11.26. 완주문화재단 송은정

생활 속 문화를 이웃과 나누다, 문화이장

도농복합지역 완주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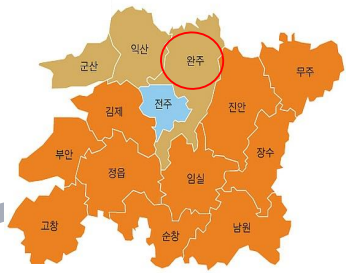
행정 3읍 10면 106리 533마을
인구 91,545명
면적 821.05㎢
재정 8,053억원(일반+특별회계)
재정자립도 16.4%
문화재정비율 약2.9%(관련부서예산기준)
관내사업체 5,900여 개

농산촌지역 ⟶ 도농복합도시 전환
1988년~완주산단조성
2013년~이서혁신도시조성
2020년~행정타운, 테크노벨리 2차조성

꾸준히 증가하는 귀농귀촌 인구
마을공동체 ⟶ 사회적경제조직 성장

3년 만에 소멸 주의 지역에서 소멸 위기 지역으로

■ 소멸 위험 진입 ■ 소멸 주의 단계 ■ 정상 단계



출: **2017**.9.6. 중앙일보 기사

전북 인구소멸위험지역		
시군	소멸위험지수	구분
정읍시	0.306	위험
남원시	0.297	위험
김제시	0.249	위험
완주군	0.419	위험
진안군	0.201	위험
무주군	0.201	위험
장수군	0.204	위험
임실군	0.187	고위험
순창군	0.217	위험
고창군	0.204	위험
부안군	0.22	위험
위험진입(0.2-0.5미만)/고위험(0.2미만)		

출처: **2020.10.8.** 전민일보기사

완주의 문화자원은,

자료 : 2019 완주군문화도시조성계획

구 분		수
도서관	공공	5
	작은,학교	15
문예회관		1
박물관		4
미술관, 갤러리		8
문화원		1
문화의집		2
생활문화센터		3
청소년문화센터		2
영상미디어센터		1
영화관		1
공연장		3
창작스튜디오		3
복합/문화공간		31
총 문화시설		**80**

✔ **완주예총**
- 6개 지부(국악, 문인, 사진, 연극, 음악, 연예예술인)
- 280여 명
- 현재 미술지부 설립 준비 중

✔ **(사)완주생활문화예술동호회네트워크**
- 7개 분과 (공예, 무용, 문학, 전통, 시각, 음악 등)
- 72개 동호회, 700여명

✔ **문화인력**
- 문화시설 및 문화예술단체, 중간지원조직 종사자
- 마을사무장, 문화이장, 컬쳐메이커스, 문화공동체등
- 2,000여 명

✔ **공동체 조직**
- 총349개
- 참여인원 3,881명(인구 4.2%)
- 8개 유형 다양한 공동체 활동

✔ **책 읽는 지식도시 완주**
- 완주군민 3명 중 1명은 도서관 회원

✔ **지역문화지수 전국 군단위 1위**(2022)

생활 속 문화를 이웃과 나누다, 문화이장

완주의 문화적 정책성과는,

- 교통, 물류 요충지 IC 6개소
- 전북경제중심지 320만평 산업단지
- 농업농촌 활력도시 로컬푸드+귀농귀촌 1번지
- 생태관광휴양전원도시 만경강 발원지

+

1. UNESCO 아동친화도시
2. WHO 고령친화도시
3. 사회적경제 친화도시
4. 법정 공동체 문화도시

“누구나 언제나 어디에서나 문화예술을 일상에서 누리는삶”

생활 속 문화를 이웃과 나누다, 문화이장

주민이 들려준 현장의 소리는,

마을주민1 "완주는 넓은데 대중교통도 마땅치 않아서 다른 마을 주민을 만날 기회가 없어요"

"타 지역에서 왔는데, 마을 주민들에게 다가갈 용기를 갖고 싶어요" 마을주민2

마을주민3 "주민을 행사에 동원하는 건 그만해주세요. 담당자 부탁으로 가보면 들러리가…"

마을주민4 "마을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주민들과 나누고 싶어요"

"반복되는 농촌 노동에서 벗어나, 활력을 불어넣는 문화생활을 하고 싶어요" 마을주민5

마을주민6 "육아 맘들 중에 고립된 분들이 많아요. 독박육아, 경력단절로 이어지고요"

- 아파서 아무것도 하기 싫고, 먹는 거나 해줬으면 좋겠어요
- 청년들이 맘 편하게 모일 공간이 필요해요. 기존시설들은 어르신들이 다 사용하고 계셔서 거기 끼기가 불편해요
- 나이 든 사람은 어딜 가도 부끄러워요. 젊은 사람들 틈에 끼려면 페끼칠까봐 신경쓰이고 힘들어요

생활 속 문화를 이웃과 나누다, 문화이장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 서울의 1.2배, 김포시보다 3배 큰 완주의 지리적 특성상(13개 읍면, 533개 마을) 사람-공간-콘텐츠가 실핏줄 같이 연결되는 **완주형 문화적 관계망**

- 다양성의 보고(寶庫)로 불리우는 완주. 다양한 삶의 방식과 문화수요를 이해하고 소통과 연결, 때론 조정자로서 주민과 함께 생활 속 문화를 나누고, 지역문화를 일궈가는 **완주형 문화인력**

- 파편화되고 동음이의적(비슷한 내용, 명칭만 다른)인 프로그램 공급은 줄이고 주체적이고 지속적인 단계별 참여를 통해 성장할 수 있는 **완주형 사업 재구조화**

생활 속 문화를 이웃과 나누다, 문화이장

문화이장

생활속 문화를 이웃과 나누다

생활 속 문화를 이웃과 나누다, 문화이장

문화이장 생활속문화를이웃과나누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둥글게 모여 앉는 것

#지역에 대한 관심 #이유있는 오지랖 #

'사람'과 '지역'을 잇는 징검다리

#사람과사람 #마을과마을 #지역과지역 #잇다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완주 문화 관계망

#주민이 주인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문화로운삶

생활 속 문화를 이웃과 나누다, 문화이장

문화이장
생활속문화를이웃과나누다

문화이장은요?

문화이장 61명	활동이장 41명	문화반상회 466회
예술워크숍 52회	주민 함께 프로젝트 28회	총참여자 9,143명

- 2017 문화이장 13명
  문화반상회 46회, 워크숍 5회
  참여인원 648명
- 2018 문화이장 26명(신규 14명)
  문화반상회 193회, 워크숍 9회, 기타 2회
  참여인원 3,260명
- 2019 문화이장 27명(신규 8명)
  문화반상회 169회, 워크숍 9회, 기타 1회
  참여인원 2,067명
- 2020 문화이장 27명(신규 13명)
  문화반상회 30회, 자기주도 프로젝트 15회, 워크숍 15회, 기타 16회
  참여인원 1,281명
- 2021 문화이장 31명(신규 13명)
  문화반상회 8회, 자기주도프로젝트 10회, 워크숍 10회, 기타 3회
  참여인원 996명
- 2022 문화이장 19명
  문화반상회 20회, 주민 함께 프로젝트 3회, 참여인원 891명

생활 속 문화를 이웃과 나누다, 문화이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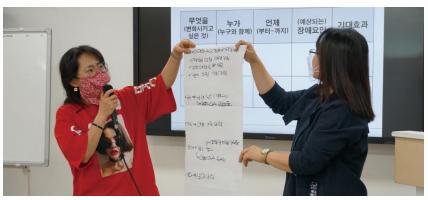
문화이장
생활속문화를이웃과나누다

주민들의 문화의제 발굴

01 문화예술 워크숍
02 문화반상회
03 주민함께 프로젝트

문화의제 함께실행 및 정책화

- 예술워크숍 ▸ 완주 문화 알기 / 서로 알아가기 / 활동 역량키우기
- 문화반상회 ▸ 주민수요듣기 / 지역현황살피기 / 의제공감,공론화
- 주민함께프로젝트 ▸ 해결방안모색 / 프로젝트기획실행 / 주민공동체 활성화



생활 속 문화를 이웃과 나누다, 문화이장

문화이장
생활속문화를이웃과나누다

생활 속 문화를 이웃과 나누다, 문화이장

문화이장
생활속문화를이웃과나누다

#둥글게 #모여앉아 #하고싶은거 #찾기

"경천면 인구는 적지만(979명) 이주민과 선주민의 왕래가 적어요.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문화활동을 해보고 싶어요"

"발달장애인들의 바램은 비장애인들의 평범한 일상을 누리는 거에요"

"어릴 때부터 그림을 그리고 싶었어요. 먹고 살기도 힘든 시절이라 아무한테도 얘기 못했지만요..."

"바쁜 농번기 말고, 한가한 겨울 농한기때 즐길 수 있는 문화활동이 필요해요"

"우리 마을엔 옛부터 전해오는 설화가 있어요. 마을 역사를 주민들이 알았으면....."

"우리 지역은 사람보다 소가 더 많아요. 문화시설도 없고... 작더라고 문화시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르신들이 집안에서 TV만 보고 계세요. 특히 코로나 땜에 더요. 야외활동이 있었으면..."

"다문화가정 자녀들에 대한 편견을 문화로 풀어가보고 싶어요"

문화이장3기, 이소영

생활 속 문화를 이웃과 나누다, 문화이장

문화이장 생활속문화를이웃과나누다

#다문화 #청소년 #편견 #예술활동 #풀어보기

이거다, 지역의제 발견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으로 인해 안정적인 정착을 하지 못하는 청소년기의 아이들이 다수 발생했어요. 이런 아이들이 우리와 잘 융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하는 예술활동을 시도해 보았습니다.

함께 풀어가 볼까요?

청소년들에 대한 이해의 계기 마련 및 지역 청소년과 이주 청소년들의 교감 형성을 위해 함께 하는 사진지도를 만들어 보기로 했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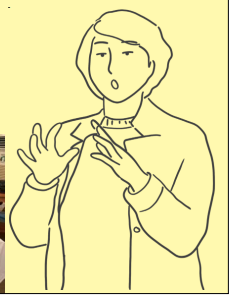
으쌰~ 우리의 활동계획

- 프로젝트명 : 청소년들과 봉동 지도 만들기
- 운영기간 : 2020년 9월~11월
- 참여인원 : 직접인원 – 5명 (봉동읍 청소년 초4~중2)
  간접인원 – 30명 (김지영 멘토, 마을주민, 관계자 외)

월 별	내 용	장 소
9월	사전 교육·회의 진행	다문화공동체 보물섬
10월	사전 교육·회의 진행	다문화공동체 보물섬
11월	지도 제작 및 인쇄, 배포	봉동지역 일대

문화이장
다문화가족커뮤니티
보물섬 운영

"부모, 기획자가 이끌기보다
아이들의 자발성으로
활동이 이루어지기를 희망"



생활 속 문화를 이웃과 나누다, 문화이장

문화이장 생활속문화를이웃과나누다

#발달장애인 #비장애인과#함께#일상경험#한복

이거다, 지역의제 발견

발달 장애인은 인지적인 결함과 자기결정능력 부족으로 인해 지역사회 활동 참여가 어려워요. 장애인식 개선 및 장애 공감문화를 조성하고 싶은 욕구를 함께 풀어보았습니다.

함께 풀어가 볼까요?

문화를 통한 발달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장애 공감 문화 조성을 위하여 함께하는 바깥나들이를 진행해 보았어요.

으쌰~ 우리의 활동계획

- 프로젝트명 : 갑돌이와 갑순이의 한옥 나들이
- 운영기간 : 2020년 9월~11월
- 참여인원 : 직접인원 - 15명 (발달장애인)
  간접인원 - 11명 (자원봉사자 외)

월 별	내 용	장 소
9월	사전 교육·회의 진행	용꿈작은도서관
10월	한옥마을 나들이 진행	전주한옥마을
11월	나들이 소감 나누기	문화이장 자택

문화이장
발달장애부모활동
작은도서관 관장

"발달장애인은
대표적인 문화 취약계층,

특별한 프로그램보다
비장애인들의
평범한 일상이 그들의 바람"

생활 속 문화를 이웃과 나누다, 문화이장

문화이장
생활속문화를이웃과나누다

#마을설화 #스토리텔링#주민=주인#찐마을축제

이거다, 지역의제 발견

제가 살고 있는 용바우 마을의 일상 및 문화활동을 꼭 기록하고 싶었어요.
이를 통해 새로운 마을 단위 문화행사가 만들어지고 경험해보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았거든요!

함께 풀어가 볼까요?

용바우 마을 주민이 직접 출연하고 촬영하는 영화를 제작하고 마을 영화관에서 상영회를 개최하여 함께하는 영화제를 기획했습니다.

으싸~ 우리의 활동은

- 프로젝트명 : 영화 "나는 용암 마을에 산다"
- 운영기간 : 2020년 9월~11월
- 참여인원 : 직접인원 - 10명 (마을 주민 연기자 및 스태프)
  간접인원 - 560명 (지역주민 및 유튜브 관객)

월 별	내 용	장 소
9월	주민 섭외 및 시나리오 점검	용암마을 일대
10월	촬영 및 주민인터뷰	용암마을 일대
11월	시사회 및 상영회 개최	해뜨는 영화관

문화이장
유학생 한글 선생님
1인 크리에이터 도전 중

"나의 농사 스승이자 내 이웃.
함께 얼굴 마주 보며 사는 곳
나는 용암마을에 산다"

- 마을영화 中 -

생활 속 문화를 이웃과 나누다, 문화이장

문화이장
생활속문화를이웃과나누다

#먹고살기 #바빴던 #은천마을상가 #전통주로 #관계맺기

"주민들과 전통주 빚으며 소통하자
마을 네트워크가 형성됐죠"

문화이장
전국 8대 오지로 불리던
동상면에서 활동

이거다, 지역의제 발견

20여 상가가 모여있는 은천마을에서 주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네트워크 형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편하게 이야기하는데는 술만한 것이 없죠. 산좋고 물 좋은 은천마을에서 술 한번 빚어볼까요?

함께 풀어가 볼까요?

주민들, 아이들과 함께 전통주를 빚으며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그것이 발전해 네트워크가 형성되었답니다.

으싸~ 우리의 활동은

- 프로젝트명 : 은천마을 문화공동체
- 운영기간 : 2020년 9월~11월
- 참여인원 : 직접인원 – 5명 (마을청년)
  간접인원 – 20명 (기타 마을 주민)

월 별	내 용	장 소
9월	마을 화합과 소통을 위한 방안논의	동상면 게스트하우스
10월	밑술 담그기 강좌, 실습 진행	동상면 상가
11월	술 거르기 및 품평회 진행	동상면 상가

생활 속 문화를 이웃과 나누다, 문화이장

문화이장 생활속문화를이웃과나누다

#경천면인구 979명 #지역소멸 #문화로 행복 #떠나지말아요

"문화소외지역의 소통, 화합, 자기계발등 교류활동을 위해 뜻 맞는 주민들이 함께 모였죠"

문화이장
농사도 짓고
그림도 그리고
노래도 불러요

이거다, 지역의제 발견

경천면 같은 문화 소외 지역에서는 주민들의 능동적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소통, 화합, 자기계발, 능동적인 교류활동을 위해 경천 주민들이 원하는 문화활동이 있으면 좋겠다싶어 뜻 맞는 주민들이 함께 모이기로 했어요.

함께 풀어가 볼까요?

지역문화를 도모하는 주인의식 고취, 같이의 가치를 느끼고 배우는 계기로서 주민중창단을 만들어 활동해 보았습니다.

으쌰~ 우리의 활동은

- 프로젝트명 : 경천 여성 하모니
- 운영기간 : 2020년 9월~11월
- 참여인원 : 직접인원 - 6명 (합창단원)
  간접인원 - 34명 (마을주민, 관계자 외)

월 별	내 용	장 소
9월	피아노 임대, 강사 섭외, 연습 시작	경천면 주민복지센터
10월	도서관의 날 발표회 진행	경천면 주민복지센터
11월	차후 프로젝트 논의	경천애인 도서관

생활 속 문화를 이웃과 나누다, 문화이장

문화이장 생활속문화를이웃과나누다

#지갑속 #오래된#신분증사진 #Make-over #꿈,다시봄

"당신은 지금도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새로운 경험을 통해 다시 한번 훨훨 날 수 있기를 바라요"

문화이장
전업주부들의 문화 외출
관광두레 PD로 진출

이거다, 지역의제 발견

경력단절 여성들이나 일반 주부들은 사회생활을 하는 여성들에 비해 자존감이 상대적으로 낮은 상태라고 생각했어요. 이들의 자존감 회복과 자신감 있는 모습을 되찾아주고자 뭔가 해야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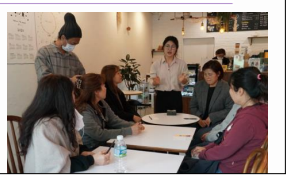
함께 풀어가 볼까요?

사회생활을 하지 않는 주부들은 신분증을 쉽게 바꾸지 않지요. 메이크오버를 통해 변신한 모습을 사진과 영상으로 남기고 그 사진으로 신분증 바꾸기에 도전해보았어요.

으쌰~ 우리의 활동은

- 프로젝트명 : 지금, 나를 만나러갑니다
- 운영기간 : 2020년 9월~11월
- 참여인원 : 직접인원 - 5명 (참가자)
  간접인원 - 100명 (유튜브 시청자 외)

월 별	내 용	장 소
9월	프로젝트에 대한 협업 논의	봉동읍 공방
10월	촬영감독,스튜디오,참여자 모집	봉동읍 카페
11월	인터뷰 및 사진촬영, 영상제작	봉동읍 사진관



#아파트유휴공간 #이유있는변신 #주민문화사랑방 #역할의확장

문화이장 생활속문화를이웃과나누다

"아파트와 마을의 주민 다목적 공간 활용방법과 개선점을 파악해 보았어요"

문화이장
아파트 공동체 열혈 활동
아파트-마을간 교류 연결

이거다, 지역의제 발견

상관면 지큐빌 아파트에는 주민 · 문화 공동체인 [공감]이 있어요.
[공감]에 대한 역할 확장 및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함께 풀어가 볼까요?

타 지역의 공유공간을 견학하며 아이디어를 얻고, 현판 및 홍보 영상물을 제작하는 등 확장된 역할에 부합되는 공간을 구축해 보았습니다.

으쌰~ 우리의 활동은

· 프로젝트명 : [공감] 알리기
· 운영기간 : 2020년 9월~11월
· 참여인원 : 직접인원 – 10명 (공감 운영위원 + **상관중 방송반 친구들**)
간접인원 – 30명 (인터뷰 참여자 외)

월 별	내 용	장 소
9월	군내 다목적공간 견학	화산 빨래터 외
10월	'공감' 현판 제작회의	지큐빌 관리사무소
11월	영상제작 및 인터뷰 진행	상관면 일대

생활 속 문화를 이웃과 나누다, 문화이장

#다양한 #의제들 #문화반상회

"세심정 느티나무 쉼터에 살고 싶은 고산 이야기를 가득 채워넣고 싶어요"

"안전하게 즐겁게 집에서 문화생활 즐기는 법을 이야기 나눴습니다"

"프로그램 진행전 마을주민들 의견·수요조사가 우선되어야 해요"

"디지털 영상 라이브러리 타이틀로 로컬 문화 콘텐츠를 만들고 싶어요"

"청소년이 바르게 정착하려면 어른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사랑이 필요해요"

"옛날 가락으로 부르는 성극은 잊혀져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여성들과 함께 대둔산의 속내를 참고하여 성찰하여 봅니다"

생활 속 문화를 이웃과 나누다, 문화이장

문화이장 생활속문화를이웃과나누다

#함께 #성장해가는 #문화이장

이서면 김연주(1기)

7. 문화이장이 재단 이사로!

· 1기 김연주(이서면)_미디어카페 대표

6. 나의 재능을 주민과 함께!

· 4기 이춘희(화산면)_주민 미술 동아리
4기 이소영(구이면)_건강 걷기 지킴이
5기 김영두(동상면)_마을 벽화 그리기 활동
1기 이성식(비봉면) 풍물강사, 중국어통역

비봉면 이성식(1기)

1. 창업의 꿈을 실현하다!

· 1기 최미경(화산면)_사회적기업 대표
· 1기 전별(봉동읍)_전스비쥬얼랩 대표
· 1기 김연주(이서면)_미디어카페 대표
· 5기 고은경(이서면)_도예공방 대표

봉동읍 전별(1기)

완주 문화자치의
핵심인력으로 성장

5. 나는 전문 문화예술인!

· 2기 이강숙(소양면)_유튜브 방송 진행
· 4기 김다은(소양면)_무용 예술 치유가
· 4기 이종화(삼례읍)_청년 연극인
· 5기 권미숙(구이면)_가든 디자이너

소양면 이강숙(2기)

화산면 최미경(1기)

2. 생활문화 시민위원으로!

· 1기 김옥자(구이면)_완주문화도시 운영위원
· 4기 김종례(봉동읍)_문화다양성 발굴단

4. 문화이장이 행정이장으로!

· 1기 김지숙(이서면)
· 1기 안미옥(삼례읍)
· 5기 양희원부부(소양면)

이서면 김기숙(1기)

구이면 김옥자(1기)

봉동읍 서지연(1기)

3. 지역의 멘토로!

· 1기 서지연(봉동읍)
· 4기 김정환(고산면)
· 5기 이선애(경천면)

삼례읍 안미옥(1기)

생활 속 문화를 이웃과 나누다, 문화이장

문화이장 [주민 함께 프로젝트]
우리집 영화관

완주문화재단
Wanju Foundation for Arts & Culture

<지극히 사적인 기록으로 돌아보는 어느 시민문화기획자의 성장>

2022년 문화모심기 김포 하부타 팀 기획자 배현명

사람들의 마음에 이야기를 심는 일을 상상하다

저는 독서교육과 글쓰기를 바탕으로 한 어린이 문화 기획에 관심을 가지고 학교 현장에서 꾸준히 독립출판 프로젝트를 실천하고 있는 어린이 문화 활동가입니다. 비록 김포에 거주한 기간은 짧지만, 아트센터의 기획전시를 일상적으로 관람하고 <드림 아티스트> 연극 1기로 직접 참여하는 등 평소에도 김포에서 일어나는 문화 사업 대한 남다른 호기심이 있었습니다. 특히 제게 문화모심기 사업은 그동안 서울시에 소재한 초등학교와 그 주변의 지역 사회를 기반으로 실천해온 어린이 문화기획을 내가 사는 도시, 김포로 확장해서 적용해 볼 기회로 다가왔습니다. 2022년 3월 지원서를 내면서 참여자를 주인공으로 만들어주는 문화프로젝트, 삶을 인문학적으로 스토리텔링 하는 프로젝트, 오랫동안 기억되는 프로젝트를 꿈꾸며, 시간과 정성을 들여 모든 과정을 참여하겠노라 다짐하던 기억이 납니다. 무엇보다 저는 <문화모심기>의 시작점에서 “사람들의 마음에 이야기를 심는 일” 을 상상하고 있었습니다.

> 저는 ‘문화모심기’라는 말이 참 좋습니다. 아마, 이 사업의 참가자로 지원한 가장 강력한 동기도 문화모심기란 거대한 의미 다발이 제 가슴이 꽂혔기 때문입니다. 누가 제게 ‘당신은 이 사업의 적격자인가요?’라고 묻는다면, 저는 머뭇거릴 것 같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제게 ‘그럼, 당신은 어디에 무엇을 심고 싶으신가요?’라고 묻는다면, 일 초도 망설임 없이 ‘사람들의 마음에 이야기를 심어야죠!’라고 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 – 지극히 사적인 기록 하나, 모집 신청서 중

다시 읽으니, 마치 몽상가의 선언 같아서 웃음이 나기도 하지만 신기하게도 제 꿈은 결국 이뤄졌습니다. 김포 하부타 팀을 만나 김포 아이들의 마음에 평화의 이야기를 심는 일을 기획하고 실행했으니까요.

김포 하부타 기획 회의로 김포에 대한 애정을 키우다

김포 하부타는 어린이 극단 이레의 대표이자 그림책 감정코칭을 하시는 허정원 대표님, 그리고 극단 이레의 전문 배우이자 그림책 작가이신 박다민 배우님, 초등교사이며 어린이 독서 문화기획자인 제가 팀을 이뤘습니다. “어린이” 와 “그림책” 이라는 세 사람의 공통분모는 자연스럽게 “우리는 김포의 아이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은가” 의 토론으로 이끌었습니다.

한강 신도시 개발로 빠르게 유입된 학령기 인구가 다른 시와 차별되는 김포의 미래 핵심 자산이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 아이들이 경험하고 기억하는 김포가 앞으로 몇십 년을 좌우할 김포의 초상이 되고, 김포시가 길러낸 아이들이 김포의 저력이 될 것이지요. 그런데 김포의 가치와 정체성을 추구하는 데 있어 김포 어린이들이 체감하는 것과 김포시가 추구하는 것 사이에 부조화가 관찰됐습니다. 김포시는 평화의 도시를 표방하고 있지만, 막상 아이들은 “김포가 왜 평화의 도시예요?” 라고 되묻는다든지 많은 예산을 들여 학교에 김포 친환경 쌀을 공급하고 있지만, 아파트 숲을 사는 아이들은 급식에서 먹는 쌀이 김포에서 났다는 사실을 생소하게 받아들인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김포 아이들에게 더 쉽게, 더 가까이서, 더 자주 숨은 김포의 가치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자는 목표를 공유하고 김포의 핵심 가치를 조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김포시 홈페이지, 도서관 시정자료집, 지역신문, 교육청 자료, 김포시 브랜드 매뉴얼까지 샅샅이 살펴보면서 무엇을 알게 됐을까요? 바로 김포가 참 매력적인 도시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시민문화프로젝트를 기획하는 과정에서 내가 사는 도시를 향한 애정이 깊어진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문화모심기>가 선물한 가장 특별한 기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배현명: 이것 좀 보세요. (김포 상징물을 보여주며) 평화, 쌀, 한강, 공항, 재두루미, 애기봉, 도시철도, 자전거, 문수산성, 장릉, 아라뱃길, 철새도래지, 포도……. 아이들과 나눌 이야기가 이렇게나 많아요.
허정원: 정말이네. <문화모심기>에 참여하면서 김포에 대한 애정이 점점 깊어지는 것 같아.
배현명: 저도요. 김포는 알면 알수록 참 매력적인 도시인 것 같아요.

– 지극히 사적인 기록 둘, 김포 하부타 기획 회의 중

치열한 몸부림으로 <드르륵 탁, 김포가 살아있다> 프로젝트를 낳다

김포 하부타는 김포의 핵심 가치 중에서도 평화를 소재로 선정하고, 그림책 연계 퍼포먼스형 교육 프로그램을 실행하기로 방향을 좁혀갔습니다. 그리고 김포 아이들이 가져야 할 건강한 평화 감수성이 무엇일까 하는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습니다.

저는 분단의 역사나 지리학적 평화를 이야기하기에 앞서 아이들이 일상적으로 발견하는 평화의 경험을 공감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김포문화재단이 주관하는 애기봉 평화생태 공원 개관, 평화포럼, 조강 평화 문화제 등을 위로부터의 평화사업이라고 한다면, 김포 하부타는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평화를 얘기하고 나와 가족, 우리 동네, 우리 고장의 평화로 확장하는, 아래로부터의 평화 감수성 씨앗 뿌리기를 목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또, 평화를 이야기할 매개체로 막연히 그림책을 사용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마침 허 대표님과 다민님이 함께 쓰신 『쫄보 얼룽이』를 각색하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퍼포먼스가 나오겠다는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합의하기까지 너무 순탄해서였을까요. 김포 하부타는 기획서를 완성하고 발표를 올리기까지 지난한 갈등을 겪었습니다. <문화모심기>의 참여자라면 대부분 임의로 구성된 팀원의 개성 즉, 각자의 재능과 관심 분야, 지원 동기가 각양각색이라는 점이 부각되는 갈등의 순간을 겪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때 저는 개인적으로 멘토인 이지은 선생님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지은 선생님께서는 제가 느끼는 어려움에 공감해주시면서도 제가 팀에서 꼭 해야 할 역할은 기획자임을 알려주셨습니다. 덕분에 김포 하부타는 어린이를 위한 평화 감수성 +Up 공연/체험/교육 프로그램을 내세운 <드르륵 탁, 김포가 살아있다>를 발표해서 기획 심사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아이들 곁에 평화가 살아 움직인다면!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지만, 발표를 준비하면서 확신을 느꼈다. 이건 진정성 있는 기획이고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다고! 발표까지 믿고 맡겨주신 팀원들에게 고맙다. 기획자로서 내가 가진 강점과 약점을 두루 살필 수 있는 시간이었다.

– 지극히 사적인 기록 셋, 인스타그램 게시물(@hyunmyungbae) 중

이제 와 고백하자면, 험난한 기획의 과정을 겪으면서도 제가 끝까지 김포 하부타 프로젝트를 놓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동네 책방에 대한 사심 어린 애정이었습니다. 프로젝트의 소재와 실행의 모습은 얼마든지 논의를 통해서 바뀔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행이 일어나는 장소는 꼭 동네 책방이었으면 좋겠다고 바랐기 때문이죠. 개인적으로 프로젝트의 진정성은 기획자가 관심과 열정을 가지는 무언가가 담보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기획자에겐 '왜 그래야만 하는가'란 질문에 확신을 보여줄 무언가가 분명히 존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에겐 바로 그 열정과 확신이 동네 책방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코뿔소 책방에 마지막 답사를 다녀왔다. 왜 이곳, 작은 동네 책방이었을까, 다시 묻는다.
교실에서 아이들에게 책 읽어주기를 실천하고 책으로 소통하는 나는 책과 관련된 사람들에게 무한한 애정과 고마움, 빚진 마음이 있다. 그중에서도 늘 감동이 되는 건 동네 책방이다. (...)
내 기획 발표를 듣고, 심사위원들은 더 큰 무대에서 더 많은 아이들이 평화 그림책 콘서트를 보게 하면 어떻겠냐고 질문했다. 반박하기 어려운 질문이다. 금세 수용 인원이 넘어서 더는 신청을 못 받았으니 아쉽고 안타까운 부분이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번 실행은 작은 동네 책방에서 다시 보기 힘들 특별한 시도라는 뜻이기도 하다. 작가를 초대하고, 독서 모임을 열고, 소규모 워크숍을 여는 것이 보통인 책방의 일상에 작은 파격을 가해 보는 일이다. 머리로 읽고 조용히 생각하는 사람들이 일색인 곳에서 몸으로 움직이고 큰 소리로 발산하는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일! 그래서 서로의 일이 조화를 이루고 마음과 마음으로 전달되는 일! 그림책이 살아 움직이고, 아이들이 깔깔대는 일! 누군가는 그런 상상을 해 보고 실천으로 이끌어줄 수 있지 않을까-
나는 <평화 그림책 콘서트>에 동원된 예산과 수고가 하나도 아깝지 않다. 책방이 있는 동네에서 자란 아이들이 누릴 윤택함을 생각한다면 오히려 이런 일은 더 자주 일어나 마땅하다.
비록 <평화 그림책 콘서트>는 특정 책방에서 일어나지만, 모든 김포 작은 동네 책방을 응원하는 마음이 곳곳에 가닿길 바란다. 우동책(김포우리동네책문화조합)에서도 같은 마음으로 추천도서와 지지를 보내주어 감사하다.

– 지극히 사적인 기록 넷, 인스타그램 게시물(@hyunmyungbae) 중

<그림책 평화 콘서트>로 김포 어린이들 마음에 작은 평화의 씨앗을 심다

문화모심기 사업에 참여한 시민문화기획자의 특권은 내가 뿌린 작은 문화의 씨앗이 어떤 모습으로 꽃피우는지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아닌가 합니다. 김포 하부타 그림책 콘서트가 있던 날, 운양동 작은 동네 책방에서 시끌시끌 평화 그림책이 생동감 있게 살아 움직였습니다. 문밖까지 참여자들이 북적거리고, 아이들이 깔깔대는 웃음소리가 터져 나오자, 지나는 사람들이 기웃기웃 동네 책방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아이들과 평화를 가져다주는 평화 오케이송을 부르고, 힘을 모아 평화의 나무를 완성했습니다. '동네 책방에서 어떻게 어린이극이 가능해요?' 라고 묻는 사람들의 통념에 신선한 파격을 주고 '우리 동네는 이런 재밌는 일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라는 자긍심을 안겨 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아침에 아이가 노래를 흥얼거리기에 살펴봤더니 평화 오케이송을 부르고 있었어요. 평화의 도시에 산다는 자부심을 잘 간직할게요." @arche_39
"아이가 어제 너무 재밌었다고, 또 가고 싶다고 아빠하고 누나한테 자랑자랑을 했어요."@oliia.roy_mom
"아이가 너무 좋았다고 해요. 이런 행사 많이 해주세요." @merryharry7
"그림책 공연극 행사로 동네가 떠들썩했어요. 작은 책방에서 이런 공연이 가능할 줄 몰랐는데, 해 보니까 되네요! 김포 어린이들에게 정말 선물 같은 밤이었어요!" @dreambookshop.rhino

– 지극히 사적인 기록 다섯, 인스타그램 피드 및 댓글 중

좋은 사람이 만들어가는 좋은 이야기를 꿈꾸다

김포 하부타가 기획한 프로젝트는 미완성입니다. 아직도 아이들과 이야기 나눌 김포의 가치가 무궁무진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김포 감수성 확산 프로그램 <드르륵 탁, 김포가 살아있다>는 다양한 주제를 거듭하며 동네 곳곳에서, 공공도서관에서, 학교에서, 혹은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형태로 뿌리내리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아이들이 더 쉽고, 더 가까이, 더 자주 다양한 김포의 가치를 만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저는 여전히 이 질문을 마음에 간직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혹시 저와 같이 이 질문을 고민하고 풀기 위해 신나는 일을 시도해보고 싶은 분 없으실까요.

이번 발제를 계기로 지난 경험과 기억을 복기하면서 정말 수많은 장면이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 속에는 어김없이 좋은 사람들이 등장하더군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던 날, 험한 빗길을 뚫고 <평화 그림책 콘서트> 리허설 극장을 다녀왔던 기억 속에는 저희 팀원들과 극단 이레 단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가진 재능과 기반이 없었다면 김포 하부타 프로젝트도 없었겠지요. 귀한 장소를 허락해주신 꿈틀 책방 이숙희 대표님과 지원의 손길을 아끼지 않고 베풀어주신 김경리 코뿔소 책방 점장님, 평화 그림책을 추천해주신 김포 우동책(우리동네책문화연합) 책방지기의 지지와 연대에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긴 시간 시민문화프로젝트를 이끌어주신 세 멘토님, 그리고 김포문화재단 관계자분들의 수고와 지원에 존경을 보냅니다.

김포 하부타 <평화 그림책 콘서트>가 있던 날, 문화모심기 사업을 맡으셨던 최명연 주임님이 퇴근 후 깜짝 방문해주셔서 크게 감명을 받았습니다. 훗날 제가 감사 인사를 전하며, 최 주임님께 메일을 보냈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썼더군요. 아이들 마음에 작은 평화의 씨앗 하나를 심기 위해 얼마나 여러 사람이 힘을 모으고 정성을 쏟아야 하는지 기억하며 이 글로 대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저는 요즘 좋은 사람들이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하는 일들에 대해 많이 생각해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좋은 사람들이 연결된다면 세상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궁금한 마음이에요.
>
> – 지극히 사적인 기록 여섯, 메일 내용 중

주제2) 지역문화정잭 파트너로서 시민력의 필요성

2021 문화모심기 ‘고롱고롱 김포’ _ 기획자 방지웅

문화모심기 ‘고롱고롱 김포’팀은 2021년 김포문화재단 문화모심기 사업에서 만난 5명(방지웅 도예작가, 김영숙 도예작가, 구자문 도예작가, 송수연 시각예술가, 홍지우 그림작가) 의 시각예술작가들로 구성된 팀입니다. 시각예술 안에서도 각기 다른 분야에서 활동하던 5명의 작가들이 모여 처음으로만든 프로젝트는 ‘338 공공의 정’ 공공미술 프로젝트입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인구 25만 수준을 유지하던 김포는 이제 인구수 50만의 대도시 특례가 적용되는 대도시로의 진입을 앞두고 있을 만큼 꾸준한 인구증가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출산 등으로 인한 자연적 증가가 아닌 신도시개발, 산업단지개발 등으로 인한 타 지역에서의 인구유입, 다문화 가정의 인구증가 등 사회적 영향이 반영되었습니다. 이에 도시개발에 따른 지역 내의 불균형, 격차가 생겨났고 이는 지역문화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에 ‘고롱고롱 김포’팀은 도시와 농촌, 구도심과 신도시를 이어줄 문화적 매개체로 ‘338 공공의 정’ 프로젝트를 계획하였습니다. 프로젝트 제목 ‘338 공공의 정’ 중 338은 김포시를 구성하는 행정구역 3개의 읍, 3개의 면, 8개의 동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3개의 읍, 3개의 면, 8개의 동 각 지역에서 주민들과 함께 그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 숨은 맛집, 내가 좋아하는 산책로, 우리 가족 이야기 등 소소한 그들의 삶을 도자타일에 기록하고 작가들은 도자타일 작품을 벤치로 제작하여 각기 다른 지역에 설치함으로써, 도심에서는 농촌지역 사람들의 이야기를, 구도심에서는 신도시 사람들의 이야기를 벤치에 앉아 쉬면서 공유할 수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5명의 지역예술가와 200여명의 시민이 참여하여 시민들의 삶을 주제로 한 도자기 벤치 6점을 제작한 ‘338 공공의 정’ 프로젝트는 참여해주신 시민들에게 많은 공감과 지지를 얻을 수 있었고 지역문화를 시각적인 요소로 기획하고자 하는 5명의 지역예술가에게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소통하는 방법을 알려준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고롱고롱 김포’는 올해 기존 5명의 지역작가들과 김남두(영상감독), 황윤구(설치미술작가)를 더 해 문화모심기에서의 활동을 기반으로 한 더욱 확장 된 문화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김포시에서 지원하고 김포문화재단에서 주관하는 ‘2022 김포시 공공미술 프로젝트’로 양촌읍 양곡리 오라니장터 인근의 옹벽에 진행하는 김포의 독립운동을 주제로 한 벽화사업입니다. 기존의 지역작가들에게 부족했던 역량을 채우고자 지역에서 활동하는 미디어, 설치미술 전문작가들과 함께하여 더욱 다양한 지역문화사업을 실행할 수 있는 팀으로 성장하는 초석을 다졌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공공미술은 현장을 방문해야 만이 감상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었고 설치미술 작품은 예술작가들이 모든 과정을 제작하여 시민 참여도가 현저히 낮은 점을 보완하고자 하였습니다. 벽화의 디자인, 제작단계에서부터 인근지역 학교, 마을주민들과 함께하여 지역주민과 지역예술가들이 함께 작품의 주체가 되는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하였고, 완성된 작품

에는 지역주민과 인근지역 다문화가정 분들의(중국,필리핀,태국,인도,몽골) 모국 언어로 온라인 도슨트 영상을 제작, QR코드를 연동하여 어디에서든 누구나 작품감상이 가능하도록 제작하였습니다.

문화모심기에서 팀을 이루고, 지역 문화사업을 기획하는 과정에서 지역 예술작가들은 다른 분야의 다양한 활동가들과 소통하고, 지역을 이해하고, 기획자로서의 지역문화사업과 그것을 받아들이는 시민 입장에서의 지역문화사업 등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수정하는 과정 자체가 김포 자치 지역문화의 발전에 양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도시로 발돋움하려는 김포는 양질의 지역문화 콘텐츠가 다양화, 대형화되고 있지만 높은 곳만 보는 사업이 아닌 문화모심기처럼 시민들과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기획자와 참여자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다양한 지역문화 사업 콘텐츠를 만들어 가는게 지역문화 기획자로서의, 지역문화를 즐기고 이해하는 시민들의, 문화적 시민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2022 문화x모심기 네트워킹 포럼

팽창도시 김포의 지역문화 생태계

2022 문화x모심기 네트워킹 포럼

일시 2022. 11. 26.(토)
장소 김포아트빌리지 아트센터 다목적홀
주최/주관 (재)김포문화재단

2022 문화x모심기 네트워킹 포럼 발표자료집

발행처 김포문화재단 평화기획팀
발행일 2022. 11. 26.
기획총괄 평화기획팀 권병은
기획편집 평화기획팀 차가영
디자인제작 그린카피